ㅁㅊ3

니가타역（新潟駅）이 올해 4월 재래선 고가화（在来線高架化） 1차 공사로 새단장을 하였다. 여느 주요 역이 그렇듯, 신칸센 타는 곳은 고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재래선 홈은 지상에 위치하여 있었다. 그런데 이번 재래선 고가화 공사로 재래선 홈이 신칸센 홈 바로 옆에 신설되어 재래선 5번 홈(특급 전용 승강장)에서 죠에츠신칸센（上越新幹線）으로의 평면 환승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니가타역 공사와 관련된 영상을 보던 중 굉장한 것을 발견했다.

이번 니가타역 대대적 공사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新潟を新型へ。

이 표어를 보고 순간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금까지 본 캐치프레이즈 중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인 것 같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니가타라는 도시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추후에 니카타에 대한 ‘지리이야기’도 올릴 예정이다! (사실 지리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철도 이야기라, ‘지리이야기’ 코너를 ‘철도이야기’로 통폐합시켜버릴까 고민 중이다.) 많은 기대 바란다.

Gibberish 2

#언올여름학교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여름학교 마지막 날이다. 정말 힘들고 피곤한 캠프였지만, 그만큼 단기간에 만든 소소한 추억들도 많았다. 새벽 1시 반, 잠시 생윤 인강을 멈추고 창 밖을 바라보는데, 필자의 오랜 불치병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과거 추억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필자는, 어떤 장소에 조금이라도 정이 들면 쉽게 기억 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지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추억을 잊는 것, 잃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 어딜 가든 그 곳의 풍경을 사진에 담고 소리를 녹음기에 담아 그 곳의 기억을 최대한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려고 노력한다.

이번 여름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외대 국제 캠퍼스에 5일 동안 있으면서 이곳은 벌써 정들었던 장소가 되었고, 마지막 날이 되니 다시 추억에 대한 집착이 시작된 것이다. 이를 이기지 못하고 찾아온 새벽 감성에 취해버린 필자는, 룸메 피\*\* 친구에게 잠시 산책 좀 하고 오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하고 무작정 방을 나와버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냥 캠퍼스나 쭈욱 한 번 천천히 돌아보면서 사진을 몇 장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돌아보면 새벽에 밖에 혼자 나가서 산책하는 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더욱 그랬는지, 기숙사의 밖, 새벽의 바깥 공기로 향하는 필자의 설레는 발걸음은 너무나도 가벼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해서 기숙사 정문을 나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 너무나도 당황한 필자는 문을 열어보려고 손잡이를 붙잡고 꽤 이리저리 당겨보았는데 소리가 크게 났나 보다. 얼마 안 있어 갑자기 뒤에서 경비 아저씨가 경비실에서 창문을 열고, 1시 이후에는 기숙사 통금이라 못 나간다고 말씀하셨다.

차오르던 필자의 새벽 감성에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는 말이었다.

예기치 못한 ‘갑분싸’ 상황에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필자는 엘리베이터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방에 바로 돌아가서 ‘산책을 하려 했는데 기숙사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나가겠더라. 그래서 그냥 다시 왔어.’라고 룸메에게 말하기가 조금 뭐해서, 층 휴게실에서 30분 동안 유투브의 세계에서 서핑을 하다가 방에 들어갔다. 룸메는 벌써 자고 있었고, 나도 그냥 침대에 누웠다.

부모님의 사랑

Gibberish 3 – 아이슬란드어와 핀란드어를 혼동하다

보통 원칙적으로 아이슬란드어 쌍자음은 aspirated가 되고, 핀란드어 쌍자음(모음도 마찬가지)은 장음화된다. 그런데, 아까 아이슬란드어 단어 þakka ‘to thank’를 읽던 중, 잠시 핀란드어 쌍자음과 헷갈려 /θaʰka/가 아닌 /θakːa/로 읽어버렸다.

마구잡이 언어 독학의 단점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Gibberish 4 – 하겐다즈와 움라우트

네 달 전, 필자가 사는 아파트 지하상가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스토어가 생겼다. 4년 전 중국 상하이 상점 거리에서 처음으로 하겐다즈 스토어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시중에서는 팔지 않는 색다른 여러 맛의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어서 무척 좋았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인지 스토어가 여기 아파트 단지에 막 입점했던 당시에도 굉장히 반가웠다.

필자는 오늘 오랜만에 가게를 들러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문득 이 배너가 눈에 들어왔다.

저 위 ‘Let’s peach pärty!’라는 문구를 보자. 당연히 필자는 [lɛts piːʧ pʰɑ˞ɾi]라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까는 처음 배너를 보고 본능적으로 [lɛts piːʧ pʰæ˞ɾi] 로 읽었다. 아니, 읽었다기보단 그렇게 읽혔다. 5일 간의 언어학 여름 캠프를 끝내고 와 이미 필자의 머릿속은IPA 음성기호로 가득 찬 상태였고, 이틀 후가 본 대회인 상황에서 필자와 같은 이른바 음운론 ‘덕후’가 이런 사인을 보고 저렇게 읽은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저 사인을 본 필자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해보면,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어이가 없었다. 움라우트를 디자인 컨셉으로 쓰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일까. 하겐다즈 상표를 잘 보면 Häagen-Dazs의 첫 ‘a’에 움라우트가 붙여져 있지만 읽을 때에는 그냥 ‘하겐다즈’라고 읽는다. 결국 상표의 움라우트는 장식용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디자인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party’에도 움라우트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움라우트는 사실 역사음운론, 그리고 역사적 정자법의 관점에서 보면 무척이나 신비로운 현상이다. 특히, 나를 아이슬란드어의 깊은 매력에 빠지게 해준 아이슬란드어 움라우트는 정말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움라우트가 이런 곳에서 장식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약간 안타깝게 다가온 것 같다.

1편: 프라하로 향하다

이륙 후 약 30분 후

지금 기내 최신 팝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있는데, 선곡이 다 정말로 좋다. Calvin Harris Dua Lipa의 One Kiss, Maroon 5 Wait가 연속을 나왔는데, 둘 다 내 최애곡들이다.

I(‘ll) never get over

How could you do that to me

Now I’m tryna ~ my mind

지금 탑승 중인 비행기는 프라하행KE 935편이다. 다행히 창가 쪽 자리가 배정되어 앞으로 10시간의 비행이 굉장히 기대된다.

집에서 8시에 나와 인천공항에는 9시 쯤에 도착했는데, 신축된 제2 여객터미널이 생각보다 정말 크고 깨끗했다. 인천국제공항이 괜히 세계 최고급 공항이 아닌가 보다.

비행기 안에서 공부를 조금 할까 생각했는데, 막상 좌석에 앉아보니 할 수 있을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영화나 한 편 보아야 할 듯 하다.

프라하까지의 비행 시간: 9시간 56분

목적지까지 약 1시간 40분

아까 저 글을 쓰고 얼마 머지 않아 기내식이 와서 맛있게 먹었다. 필자는 어딜 가나 밥 만큼은 남기지 않으려 노력하는데, 기내식도 예외는 아니다! 밥을 다 먹는 이유는 아까워서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맛있기 때문인 것 같다.

약 30분 전, 러시아의 가장 큰 두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사이 정중앙 지점을 통과했다. 약 10분 후면 몇 시간 만에 드디어 러시아를 벗어나 벨라루스에 접어들 예정이다.

9시 46분에 찍은 사진 3장

이번 비행으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바로 러시아가 정말 거대하다는 것이다.

극동 지방에서 모스크바가 있는 서쪽으로 이동하는데 비행기로 10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하였다.

비행기가 생각보다 매우 빠르다! 기내식을 받을 때 벨라루스에 막 들어서던 중이었는데, 천천히 먹고 일행과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폴란드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제 30분 후면 착륙이다. 처음으로 유럽에 발을 디뎌보게 되는 것인데, 정말 설렌다. 그럼, 기내에서의 글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다.

처음 공항에 내렸을 때, 조금 당황했다. 공항의 안내판에는 영어와 자국어, 그리고 주변국 언어 1~2개가 병기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이 공항에는 영어, 체코어, 러시아어, 그리고…무려 한국어가 병기되어 있었다. 보통 공항에는 자국어와 함께 주변국 언어와 영어 정도가 병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한국어가 체코 공항의 안내 표지판에 적혀있을 이유는 없었다. 게다가 출입국 심사대에서도 내국인, 외국인, 유로 회원국민, 그리고 한국인 레인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이 공항을 대한항공이 인수했다는 것 정도밖에 없는 것 같다.

유럽의 공기는 그다지 한국과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기온은 높았지만 약간 건조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산뜻한 날씨였다.

차를 타고 프라하 6구 외곽 캠퍼스로 향하는 버스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는데, 바깥 풍경은 대부분 구소련의 느낌이 났다. 직사각형의 건물에 직사각형 창문들, 전형적인 소련풍 건물이다. 과거 구소련 국가였던 체코도 이러한 건축 양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하지만, 기숙사 건물과 방조차 소련풍일 것이라는 생각은 못 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형식의 기숙사였고, 이런 모습이 필자에게 꽤나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고 데이터 로밍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아, 글로만 된 문자를 보내는 데에만 1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개인전이 끝나면 사탐 인강을 다시 들으려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행운이다. 수학 문제나 풀어야 할 것 같다.

느낀 점 한 줄: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다.

첫 날 오전: 아침밥으로는 소시지와 계란, 빵 몇 개와 요거트를 먹었다. 생각보다 맛이 괜찮아서 다행이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 뭔가 귀에 익은 언어가 들려 고개를 돌려 그들의 명찰을 보니 ‘Denmark’라고 적혀있더라. 반가워서 “Er du fra danmark?”나 “Jeg kan tale dansk.”라고 말을 할까 고민했다. 한때 덴마크어에 빠졌을 때 덴마크어의 발음을 어느 정도 연습했던 적이 있었기에 약간의 자신감은 있었지만 귀찮기도 해서 그냥 관뒀다. 그런데 덴마크어를 실제로 들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굉장히 신기했다.

밥을 먹고 나와서 빌딩 앞에서 한국 팀 애들끼리 서 있었는데, 옆에서 유쾌하게 대화하고 있던 러시아 국가대표 팀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와서 말을 걸었다. 그들도 약간 어색했는지 머뭇거리면서 우리가 있는 쪽으로 왔는데,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자 그냥 알고 있는 아무 러시아어를 외쳤다. 아마 “Привет!”라고 말했던 것 같다. 러시아 친구들도 반가워하면서 한국의 인사말을 물어봤고, ‘안녕’이라고 가르쳐주자 서서히 다시 대화가 끊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필자는 몇 년 전 러시아어 독학을 시도했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러시사어의 필자체를 연습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러시아어 독학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꺼냈고, 그 이후로도 서로에 대한 릴레이 질문이 오가면서 서서 한 20분 정도 수다를 떤 것 같다. 카페테리아 건물 입구에서 동양인과 유럽인 5~6명이서 큰 소리로 오랫동안 떠드는 것이 신기했는지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막 몰려와서 대화에 관심을 보였다.

어제 공항 앞에서 서로의 이름을 교환하고 짧게나마 이야기를 했던 우크라이나 팀 여자 참가자 한 명과 불가리아 팀 남자 참가자가 합류하면서 범슬라브 언어들로 대화 주제가 넓어지기 시작했다. 얼마 안 있어 밥을 먹고 막 건물에서 나온 폴란드 팀과도 폴란드어와 체코어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특히 폴란드 팀과 한 대화가 기억에 남는데, 그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필자는 이전까지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만 서로 상호 의사 소통이 가능한 언어인 줄 알고 있었는데 폴란드인들도 체코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한다.

올해 초 언어학 올림피아드 선발전에 지원을 할 때, 필자는 자기소개서에 이런 말을 쓴 적이 있다:

“국제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면 언어학에 조예가 깊은 전 세계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언어학에 대한 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필자는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친분을 쌓는 것에 대한 막연한 로망이 있었다. 언어학 올림피아드에 참가를 결정한 이유도, 외국에 가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외국인들과 언어학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폴란드 국가대표팀의 한 남자와 아까 특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신의 언어에 대해서 설명해줄 때 필자는 순간 행복감을 느꼈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여하튼,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폴란드 팀과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동양인 무리가 서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서 잠깐 덧붙이자면,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사실 하나 더 있다. 바로 일본어 대화 상태를 만드는 것. 4년 간 일본어를 독학해 어느 정도의 수준에는 도달했지만, 정작 그 기술을 쓸 곳이 없어 항상 답답했다. 물론, 심심할 때마다 인터넷에 있는 일본 우익들과 댓글로 한바탕 싸우긴 하지만 실질적인 대화 상대가 필요했다. 마침 뭔가 일본인처럼 생긴 사람들이 몰려있었던 것을 본 필자는 전화를 받는 척 하면서 열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던 슬라브인들의 무리에서 슬쩍 나왔다.

아니나다를까, 일본인이 맞았다. 그래서 필자는 처음에 영어로 말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옆에 서 있던 사람은 중국 국가대표였다. 아쉽게도 그 중국인은 일본어를 몰랐고, 결국 영어로 약 20분 동안 한중일 동북아 3국끼리 수다를 떨었다.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을 만나고 수다를 떨고 느낀 점은…

슬라브계 언어를 단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아쉬움으로 작용했다. 러시아어라도 조금 더 했다면 슬라브계 국가들의 사람들과 말도 더 잘 통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용감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덴마크나 스웨덴, 프랑스, 일본 팀이 보인다면 꼭 그들의 말로 말을 걸 것이다!

느낀 점 한 줄: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7월 27알

오전에는 개인전 대회를 했다. 2, 3번은 여러 시행착오 후에 어찌어찌 풀 수 있었고, 나머지는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풀었다. 생각보다 6시간은 너무 빨리 갔고, 5문제를 완전히 다 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올해 문제가 국제언어학올림피아드 공식 웹사이트에 업로드 되어있다! http://www.ioling.org/problems/#1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시험에 관련된 재미있는 짧은 일화가 있는데, 원래 개인전 시험 시작 시각이 오전 9시였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팀은 시험이 치러질 캠퍼스 건물 앞에 10분 일찍 가서 입실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9시가 되었는데도 건물 안에서 들어오라는 신호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주변 팀들도 이제서야 막 도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대회 주최측 관계자들이 멀리서 책상과 의자를 들고 오는 것이 보였다. 시험 감독용 의자 및 책상을 운반 중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계는 벌써 9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여유가 가득했다. 이를 보고 우리 팀원 중 한 명은 내년 한국 용인에서 국제언어학올림피아드가 열릴 때 입실 시각을 정해놓으면 유럽인들은 ‘입실 시각’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했다. 9시 15분이 되어서야 고사장에 들어설 수 있었고, 9시 18분에 시험이 시작해 정확히 오후 3시 18분에 시험이 끝났다.

끝나고 와서는 기숙사에서 쉬다가 강의를 들으러 갔다. 코퍼스 언어학과 관련된 강의였던 만큼 집중해서 들으려 하였으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잘 들리지 않았고 전체적인 발표에 개연성이 없어 아쉬웠다. 대신 코퍼스 언어학에 대한 기본적인 입문 지식은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강의 후 저녁을 먹고 기숙사에 돌아와서 침대에서 몇 시간 동안 뒹굴거렸다.

그리고 밤에는 우리 팀 친구들끼리 모여서 피자와 맛있는 음료수를 시키고 카드게임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펑펑 놀았다! 생전 처음 먹어본 그 음료수는 정말 맛있었다...!

7월 28일

오늘은 하루 종일 단체관광을 하는 날이었다.

당연히 프라하 시내 관광을 할 줄 알았는데 프라하의 동쪽으로 약 70km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로 우리를 데려가더라. 도시의 이름은 Kutná Hora.

아침을 먹고 우리는 대형 버스에 올라탔는데, 버스 뒤쪽에 폴란드와 체코 국가대표 팀이 앉아있더라. 처음에 그들이 하는 언어를 듣고 러시아 팀인가 싶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슬라브계 언어들이 아직 필자에게는 모두 같은 언어로 들리니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약 5분 후, 버스의 앞쪽에 일본 국가대표 팀과 또 다른 유럽의 어떤 국가의 국대 팀이 탔다. 지난 사흘 간 필자는 항상 일본 국가대표 팀원과 팀 리더들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국가대표 팀의 얼굴은 다 알고 있었지만, 버스에 막 올라탄 유럽인들의 국적은 쉽게 파악되지 않았다.

유럽인들의 무리 중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앞쪽에 자리가 없었는지, 복도 건너 바로 필자의 옆자리에 와서 앉더라. 명찰을 보니 스웨덴. 순간 필자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시작한 스웨덴어. 비록 고등학교 2년 간 손을 완전히 놓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기억이 나겠지,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스웨덴어들을 막 떠올려봤다. 하지만 기억나는 것이라곤 기본적 인사와 자기소개밖에 없었다. 그래도 인사말이라도 해주면 정말 반가워해주겠지, 하고 말을 걸 기회를 계속 살펴보고 있었다. 그들이 하는 대화에서 들리던 스웨덴어는 역시 정말 아름다웠고, 스웨덴어 공부하길 잘 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 스웨덴인 2명이 서로 손을 잡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들은 무려 커플이었다. 여러 눈꼴사나운 애정행각을 하던 그들은 서로에게 정말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았고, 그들의 오붓한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 필자는 매너 상 말을 걸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는 길에 트램을 볼 수 있었다!

내려서 약 2시간 동안 쿠트나 호라의 대성당을 투어하였고, 여러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역시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이었다.

여기서 필자는 일본 국대 팀 친구들에게 드디어 일본어로 말을 걸 수 있었다! 투어 프로그램 때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폴란드 팀이 같은 조에 배정이 되어 계속 같이 다니고 있었다. 도중 성당 안에서 오르간 연주를 듣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성당 안 긴 의자(필자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모든 성당 안에 있는 이 긴 의자를 무엇이라고 지칭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에 앉았는데 필자 바로 뒷줄에 일본 팀 친구들이 앉는 것이다! 필자가 뒤로 돌아 용기를 내어 먼저 인사를 했고, 다행히 그들도 반갑게 인사해주더라. 약간 긴장을 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장소적 특성 상 그냥 짧게 3~5분 정도만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아마 출신지와 어제 개인전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했던 것 같긴 하다. 대화를 나눈 일본 국대 팀 친구 중 한 명은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했었다. 신기했다.

바깥의 풍경이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이다. ‘유럽의 도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날씨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았다. 굉장히 맑았고, 기온도 높았지만 전혀 습하지 않아 가볍게 걸어다니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다.

12시 즈음, 성당 옆에 있던 한 건물 안에서 식사를 하였다. 작은 뷔페 같았는데 음식들은 밖에 위치해 있었고, 그 음식들을 접시에 담아 건물 안에서 먹는 그런 형식이었다. 음식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맛있었다. 개인적으로 치즈 중에서 블루 치즈, 특히 고르곤졸라를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서 먹은 고르곤졸라도 굉장히 맛있었다.

밥을 다 먹고 일행 중 2~3명은 맛있는 음료수를 마시러 갔고, 나머지는 건물 안에서 쉬기로 했다. 체코까지 온 이상 최대한 많은 풍경을 눈에 담고 추억을 만들고 싶었던 필자는 남은 1시간 가량의 시간 동안 혼자서라도 밖의 거리를 산책하고자 건물 밖으로 나갔고, 친구 중 한 명이 같은 생각을 했는지 산책에 동행하기로 하였다.

사실, 이 1시간 동안 본 것들이 필자가 살면서 본 것들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음악 선율이 공기를 타고 떠돌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미소와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아기자기한 유럽의 돌길 거리. TV나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풍경이 눈 앞에 펼쳐져 있었다. 아까 뷔페에서 1시간 반에 걸쳐 많은 것들을 흡입했음에도 불구, 아이스크림과 뉴텔라 와플을 사먹으면서 디저트 배는 밥 배와 따로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기도 하였다. 아쉽게도 이때 뷔페에서 찍은 사진들이 다 날라가버렸다...

걸으면서 먹었던 뉴텔라 와플. 맛있긴 했는데 마실 것 없이 먹기에는 조금 무리였다.

이후에 미술관과 또 하나의 대성당에서 관광을 했다. 사실, 이때는 너무 더워서 이미 지칠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진을 찍진 않았다. 미술관에서는 하라는 그림 감상은 안 하고 팀 친구와 체코어 문법 규칙 찾아내기를 했는데, 알아낸 사실은 별로 없었다:

어순은 일반적 인도-유럽어와 같이 주어-동사-목적어의 SVO 형태였고, 영어의 be나 프랑스어의 être에 해당하는 동사가 1인칭 단수일 때에는 jsem, 1인칭 복수는 jsme, 3인칭 단수는 je, 3인칭 복수는 json 정도라는 것. 그리고, ‘살다’라는 뜻의 동사의 변형도 1인칭 복수에서는 žijeme, 3인칭 단수에서는 žije라는 것. 또한, 체코 공항에서 본 Vítejte v Praze!라는 문구에서 v 전치사가 무슨 뜻인지 꽤나 궁금했었는데, v umění라는 문구가 ‘in art’라는 뜻임을 알게 되었고, v도 결국에는 ‘~에’, ‘~에서’ 등의 의미가 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의문사 ‘when’, ‘who’, ‘where’은 각각 když, kdo, kde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정문을 표현할 때에는 부정문의 동사에 부정형 접두사 ne-를 붙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최근 몇 주간 언어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몸에 박혀, 외국어를 보면 일단 달려들어 이리저리 뜯어보고 분석해보는 습관이 생긴 것 같다.

지금 기숙사에 돌아와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정말 너무 피곤하다.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다.

**7월 29일**

오늘은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소중한 경험들을 했다. 오늘의 글은 꽤 길어질 듯 하다.

먼저, 아침에는 단체전이 있었다. 개인전보다는 덜 치열한 형식이라 별로 많이 긴장이 되지는 않았다. 9시부터 시험 시작이었는데, 아침을 먹고 기숙사로 돌아와 고사장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단체전은 각자의 기숙사 방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시험 시작까지 채 10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알게 되었다. 일단 시험 시작까지 5분밖에 남지 않아 룸메와 기숙사 방을 급히 치웠고, 어찌어찌 해서 3분만에 고사장 세팅을 끝낼 수 있었다.

단체전 문제 난이도는 정말 몇 년 만의 ‘헬난이도’였다. 브라질의 매크로예 어족의 예 어파에 속하는 언어 3개 (멤벵오크레어, 샤반테어, 크링카티어)를 분석하여 주어진 문장들을 번역하고 문법 규칙을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일단, 언어 3개가 한 문제에 한꺼번에 출제되어 자료를 비교해야 하는 문제는 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세 언어 모두 단수형, (쌍수형), 복수형 간 공통 어근이 없는 괴상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나마 같은 어족의 언어들이라 언어 간의 음운론적 대응 관계는 끌어낼 수 있었고, 팀원들의 협력으로 문제를 그럭저럭 풀어나갈 수 있었다. 4시간 동안 한 문제를 푸니, 팀원 4명 모두 2시간대 이후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했고, 2시간 반이 지나면서 실성한 듯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문제 해결 중 ‘고기가 물고기에게 자식을 주다’와 같은 ‘충격과 공포’의 예문이 잠깐 등장하기도 했었다. 즐기면서,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 하면서 풀었던 것 같다.

1시에 단체전이 끝나고, 어제 쿠트나 호라에서의 시간이 너무나도 불만족스러웠던 우리 팀은 따로 프라하 여행을 가기로 하였다. 체코까지 왔는데 프라하를 못 보고 가면 서운하지 않겠냐며 성을 내던 우리들은 3시 반 모두 모여 무작정 길을 떠났다. 사실, 프라하 성까지 어떻게 가는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지급한 문제는 버스표를 구하는 것이었다. 일단 버스 정류소로 가면 표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향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편에서 우리가 타야 하는 107번 버스가 오고 있는 것이었다! 버스를 잡아서 기사님에게 어떻게든 표를 구하는 방법을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해 무작정 버스 정류소로 뛰었다. 버스 정류소에 도착해 버스를 보니, 버스 승차 문이 열린 채로 우리 앞에 한 일행(이 사람들도 언어학올림피아드 참가자들이었다)이 한 명의 언어올림피아드 자원봉사자(대회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사람들 – 이 사람은 체코인이었다)의 통역으로 버스 기사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아마 이 사람들도 표를 구하는 것인가 싶어서 버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 2분 후, 이들이 표를 다 샀는지 버스 안쪽으로 들어갔고, 우리 팀 팀리더분이 버스 기사님께 말을 걸기 위해 운전석 바로 옆으로 다가갔다. 그 뒤를 필자와 필자의 친구 중 한 명(룸메)이 바싹 붙어 따라가 버스 안으로 들어선 그 순간, 버스 기사님이 화가 나셨는지 차 출입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악셀을 밟으셨다! 버스 안에 있던 사람은 필자와 팀 리더, 그리고 그 친구 한 명 뿐이었고 나머지 일행은 버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는 그들을 태우지 않고 그냥 출발한 것이다. 결국, 이렇게 의도치 않게 우리 팀은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먼 타지에서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다.

그때, 우리 앞에서 버스표를 사던 팀을 도와주던 자원봉사자 분이 다가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하셨다. 지금 앞의 팀이 표를 사느라 버스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 그냥 출발한 것 같으니, 일단 나머지 일행에게 연락을 취해보고 자기가 버스와 지하철 표를 다시 구해보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다.

107번 버스의 종점이자 우리가 지하철/트램으로 환승해야 했던 Dejvická역에 도착해 나머지 일행을 기다렸고, 자원봉사자 분의 도움으로 다행히 우리 팀은 재회할 수 있었다.

이때, 그 자원봉사자 분이 놀라운 제안을 하셨다. 혹시 괜찮다면 동행할 수 있겠느냐, 만약 된다면 자기가 프라하 시내 관광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다. 세워놓은 계획이 없던 우리는 당연히 그 제안에 OK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와 만나게 된 것이다.

나머지 일행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자원봉사자 분이랑 길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알고보니 프라하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대생이었다! 자기가 다니는 대학이 프라하 1구 시내 쪽에 있어서 (프라하 1구는 프라하의 관광지가 모두 모여있는 중심지다) 프라하 성이나 관광지 쪽을 잘 알고 있다고 하셨다.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그 분이 방탄소년단 팬이었다는 것이다. 왜 방탄소년단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순간 너무 반가웠다. 체코까지 와서 아미를 만날 줄은 상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정말 방탄소년단이 이제는 글로벌 스타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필자도 방탄소년단 팬이라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 최애는 RM이라고 하셨다. 신기했다. 그러면서 정말 한 10분 동안은 방탄소년단 이야기만 한 것 같다.

나머지 일행이 도착하고 우리는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일단 첫 번째 목적지는 프라하 성이었다. 자원봉사자 분의 도움으로 Dejvická 지하철 역 구내 편의점에서 트램-지하철-버스 공용 표를 사서 다시 밖으로 나와 트램을 타고 이동했다. 태어나서 트램을 처음 타보기도 했고, 트램도 철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필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이것은 프라하의 교통 표이다. 이것만 있으면 트램, 지하철, 버스 모두 탈 수 있다. 아마 일일 승차권이었던 것 같다.

트램 사진도 날라갔다ㅠㅠㅠㅜㅜ

대학생 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성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다. 거기서 그 대학생 분은 잠시 집에 다녀와야 한다면서 성 관광이 끝나면 다시 합류하기로 하셨다.

프라하 제 1의 관광지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정말 많았다. 그런데, 과장 아니고 그 중 삼분의 일은 한국인이었다. 왠지 반가웠다.

프라하 성은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백문이 불여일견, 다음은 사진들이다.

프라하 성 관광을 끝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스타벅스로 알려진 프라하 성 스타벅스로 향했다. 약 1달 전 페북에서 무려 4만 라이크를 받은 프라하 성 스타벅스 소개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기만큼은 정말 가야겠다고 결심했었다.

페북에서 본 곳을 실제로 와보니 느낌이 색달랐다. 무엇보다 정말로 경치가 좋았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꼭 함께 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 가지 웃긴 점은 스타벅스에 있던 사람의 삼분의 이는 한국인이었다. 어디로 눈을 돌려도 한국인 밖에 없었다. 심지어 카운터에도 이런 안내판이 붙여져 있었다.

한국에는 없는 것을 마셔보고 싶어서 처음 보는 메뉴인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프라푸치노를 그란데 사이즈로 주문했다. 정말 맛있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맛차 크림 프라푸치노를 먹는 것을 보고 녹차 덕후인 필자는 다시 주문대로 가 맛차 크림 프라푸치노를 그란데 사이즈로 주문했다. 그란데 사이즈 음료를 2잔이나 먹으니 배가 굉장히 불렀지만 행복했다.

그 대학생 분과 다시 합류해 Malá Strana (Lesser Town)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필자 앞에 펼쳐져 있던 광경은 정말 엄청났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아기자기한 돌길. 인생에서 본 것들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트램이 다니는 길.

가던 도중 세르비아 대사관을 발견했다. 필자가 아는 바로는 키릴 문자와 로마자를 혼용해서 쓴다고 하던데, 표지판을 보니 실제로 그러는 것 같다.

조금 걸으니 길이 넓어지며 서서히 앞이 확 트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앞에는 그 전까지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이 펼쳐져 있었다.

드디어 카를 교, Karlův most에 도착한 것이다.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이었다. 순간 필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일행 모두 발걸음을 한 발짝 옮길 때마다 탄성을 내뱉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광경이었다.

카를 교를 건너고 우리는 프라하 1구 구시가지 (Staré Město)로 접어들었다. 아름다운 풍경의 연속이었다.

구시가지를 1시간 가량 느긋하게 걷고 우리는 Můstek 역이 있는 광장에 도착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였고 명품 옷 등을 파는 점포나 여러 휘황찬란한 가게가 눈에 띄어 서울의 명동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또 30분 가량을 걸어 프라하 시계탑(Pražský orloj)이 있는 구시가지 광장(Staroměstské náměstí)에 도착했다. 아름다운 건물들의 향연이었다.

광장에 도착한 것이 오후 8시 반이었고, 이때 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대학생 분께서 우리를 좋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려 하셨지만 영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그 분께서 자주 가시는 단골 햄버거 집에 가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위치는 Staroměstská 역 근처 작은 골목이었다.

가게 안에는 외국인 관광객 한 명도 없이 모두 체코 사람들이었다. 관광 동선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라 주로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인 듯 했다. 가게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메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 우리나라로 치면, 프리미엄 패스트 푸드 가게와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했다.

‘아시아볼’이라는 메뉴와 햄버거 사이에서 한동안 고민하다가, 햄버거 가게에 왔으니 햄버거를 먹는 것이 맞는 선택이라 생각해 그렇게 주문했다.

일행과 같이 줄을 서 각자 주문을 하는데, 필자의 차례가 되어 영어로 주문을 하려 한 순간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던 한 젊은 남자분이 한국어로 “혹시 한국 분이세요?”라고 물어보셨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놀란 필자는 그 분에게 “네, 혹시 한국 분이세요?”라고 여쭤봤고, 그 분은 그렇다고 하셨다.

알고 보니 그 분은 체코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님 두 분 모두 한국 분이셔서 집에서는 한국어를 쓴다고 하셨다. 먼 타지에서 한국인을 만나니 정말 반가웠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음료를 하나 샀는데, 정말 맛있었다. 원래 필자는 탄산을 못 먹지만, 이 음료수의 탄산은 음료수 자체의 청량하고 시원한 맛의 화룡점정을 찍어주었다.

스무디가 약간 무거운 느낌이 나는 맛이었기 때문에 약간 아쉬웠지만, 햄버거는 꽤 맛있었다.

카운터의 젊은 남자 분과 작별 인사를 하고 우리는 슬슬 기숙사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돌아다녀 지칠 대로 지친 필자에게 엄청난 희소식이 들렸다. 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탄다는 것이다!

프라하의 버스, 트램은 이미 탔지만 사실 필자는 지하철을 정말 타보고 싶었다. 그런데 마침 탈 기회가 생겨 너무나도 행복했다.

햄버거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프라하 지하철 A 선 Staroměstská (스타로몌스트스카) 역이 위치해 있었다. 역 내부는 다음과 같다.

개찰구에 봉이 달려있지 않은 모습이 인상 깊었다.

Dejvická(데이비츠카), Nemocnice Motol(네모츠니체 모톨) 방면 기준으로 역 바로 옆에는 블타바 강이 흐르고 있는데, 노선이 강 지하를 지나 승강장은 매우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안전문이 설치되지 않은 역에 가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늦은 시각이어서 그런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역은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했다. 선로를 보니 표준 궤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하긴, 웬만하면 표준 궤간을 쓴다. 대부분의 철로가 협궤로 되어있는 일본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한다.

열차 입선.

열차도 그렇게 이질감이 드는 디자인은 아니었다. 역시 한국과 궤간이 같아서 그런지 열차 차체 크기 자체도 비슷했다.

열차 발차음은 3VF 비스무리한 소리가 났지만, 정확히 무슨 엔진을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유럽의 지하철이 그렇듯, 자동 안내방송은 굉장히 간단한 형식으로 되어있었다.

속도도 꽤 빨랐고, 승차감도 좋았다. 열차 안도 굉장히 깨끗했다.

좋은 경험이었다!

Dejvická 역에서 내려 우리는 대학교 캠퍼스가 있는 Suchdol로 가는 147번 버스로 갈아탔고, 하루 종일 우리에게 프라하 관광을 시켜주신 대학생 분과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런데, 그 분께서 괜찮으면 내일 프라하 관광을 한 번 더 시켜주겠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걸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날 그 분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정말 감사하다.

돌아가는 길.

이 날은 몇 안 되는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고, 정말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다!

상-자괴감

일본인 철덕

맥주 줄

체코인 여대생!

7월 30일

7월 31일 화요일 오전 11시 반. 필자는 지금 3층 로비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어제 오후 10시 반 쯤에 기숙사에 도착해 맥주를 마시며 친구들과 카드 게임을 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이었기에 계속 놀려고 했지만, 체력적으로 너무 피곤해져 결국 1시 즈음에 잠을 청했다. 몇몇 친구들은 4시까지 놀았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제 일정은 문제풀이 세션으로 시작했다. 오전 9시부터 점심 직전까지 진행됐는데, 문제 풀이들을 보면서 다시금 출제자들의 위대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점심을 먹고 드디어 대망의 시상식이 있었다. 필자는 최선을 다해서 국제 대회 준비를 했고 시험을 볼 때에도 최대한 열심히 했으나, 여러 우수한 친구들이 문제들을 더 잘 풀어냈기에 상은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그랬기에 시상식은 편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Honorable Mention 최\*\* 친구와 Bronze Medal 피\*\* 친구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싶다!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친구들이며, 상을 받아 마땅하다.

물론 필자도 인간인지라 상을 타고 싶었고, 당연히 개인전을 할 때에도 머릿속으로 상정하고 있던 목표는 입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전이 끝나고 며칠 간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언어학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볼 기회가 있었고, 그때 필자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 비단 학문적인 면뿐만 아닌 여러 인간적인 면에서 훨씬 멋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계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열심히 했음에도 입상하지 못한 것은, 나태해지지 말고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시상식이 모두 끝나고 다시 프라하 시내로 나갔다. Karlasová가 우리와 다시 합류했고, 어제와 비슷한 경로로 걸으면서

체코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첫 글이다.

한국은 상상 이상으로 덥다. 지금까지 19년 살아오면서 보고 느껴온 한국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정말 말 그대로 ‘찜통더위’였고, 자동차 라디에이터 앞에 서있는 것처럼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습하다. 정말 걱정이다. 올해 초 서울의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던 것을 떠올려보면 현재와 약 60도 차이가 나는 것인데, 지리를 공부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연교차가 60도까지 벌어지는 도시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다. 서울은 정말 극한 환경의 도시인 듯 하다.

얼마 전 Duolingo로 체코어 공부를 시작했다. 체코에 다녀오고 나서 체코어에 깊은 흥미가 생기기도 했고,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던 중 여러 유럽의 어족 중 유독 슬라브어 어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문외한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도 했기 때문이다. 슬라브어족 언어들은 로망스어나 게르만어족의 언어들에서는 볼 수 없는 문법적 특징들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격변화가 화려할 것 같아 굉장히 기대된다. 물론 성이 3개나 있는 데에다 체코어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조금 공부를 해봐야 알 것 같다. 아이슬란드어만 할까.

사실 체코어 공부를 하면 좋은 것이, 슬로바키아어는 거의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고 폴란드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한다. 스웨덴어를 공부했는데 노르웨이어와 덴마크어가 1+2로 따라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약 한 달 동안 언어학 공부만 했더니, 외국어를 보는 시점이 약간 달라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체코어 발음을 공부할 때 IPA 기호로 표현해 적으려는 습관이 생겼고, muž ‘man’과 hrad ‘castle’이라는 두 체코어 단어가 \*/muʒ/와 \*/ɦrad/가 아닌 /muʃ/와 /ɦrat/로 발음되는 것을 듣고 ‘C🡪[-voice]/\_#’라는 음성 규칙이 갑자기 머릿속에 그려지는 신기한 경험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 Voiced obstruents are realized voiceless in the pre-pausal position (final devoicing). Compare led [lɛt] ('ice') – ledu [lɛdu] ('ice' gen.) vs. let [lɛt] ('flight') – letu [lɛtu] ('flight' gen.) (위키피디아 ‘Czech phonology’에서 가져온 글이다. 위키피디아는 개론, 개략적인 수준까지는 압축적이고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 언어 정보 파악을 위해 애용하고 있다.)

위키피디아의 설명에 의하면 voicing의 assimilation 현상도 있다고 한다.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다:

Sonorants (/m/, /n/, /ɲ/, /j/, /r/ and /l/) have no voiceless counterparts and are never devoiced. They do not cause the voicing of voiceless consonants in standard pronunciation, e.g. sledovat [slɛdovat] ('to watch').

There are some exceptions to the rules described above:

-The phoneme /v/ also does not cause the voicing of preceding voiceless consonants (that is, it acts as a sonorant before vowels), e.g. světlo [svjɛtlo] ('light'). However, /v/ followed by a voiceless consonant is also realized voiceless, e.g. vsadit [fsaɟɪt] ('to bet').

-The phonemes /x/ (written ⟨ch⟩) and /ɦ/ (written ⟨h⟩) form a special voice pair even though the places of articulation differ, e.g. vrh [vrx] ('a throw') – vrhu [vrɦu] ('a throw' gen.). (중략) The phoneme /ɦ/ undergoes progressive assimilation after /s/ in Bohemian pronunciation, e.g. na shledanou [na sxlɛdanou̯] ('goodbye'), whereas standard regressive assimilations are typical of Moravian pronunciation, [na zɦlɛdanou̯].

꽤 흥미로운 음성 규칙이다.

체코어 발음법은 아이슬란드어 발음법과 음성 규칙보다 덜 복잡해서 좋은 것 같다. 사실, 필자가 여러 언어 중에서 아이슬란드어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음성 규칙의 복잡성 때문인 점을 감안한다면 좀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생각이겠지만, 일단 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 아무래도 공부하기에는 편하다.

아, 그리고 요즘 매일매일 체코어의 ř 발음을 연습 중이다. 발음은 voiced alveolar fricative trill(한국어 용어는 뭔지 잘 모르겠다. 사실 한국어 용어가 아직 그리 익숙하지 않다), 음성 기호로는 /r̝/가 되는데, 뇌로는 이론상 어떻게 발음되는지 알지만 입이 그 소리를 못 낸다. 인터넷 영상들을 보니 alveolar trill과 voiced postalveolar fricative를 섞어서 발음하라고 하던데 생각보다 잘 안 된다. 하지만 약 3년 전, 스웨덴어의 /iː/를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 약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연습해서 결국 해냈던 적을 떠올려보면, 체코어의 이 발음도 언젠간 되지 않을까 싶다. (스웨덴어의 장음 i 발음은 우리가 아는 일반 전설 고모음의 i와 다르다. 혀와 치경 사이의 거리가 일반 i보다 더 좁혀져서 바람이 갈려 나오는 소리가 나야 한다. 스웨덴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마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위키피디아 ‘Swedish Phonology’ 글 ‘Vowel’ 카테고리에 나오는 첫 번째 예시 표 가장 첫 예시 음성에서도 녹음되어 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체코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정도이다.

Děkuji, na shledanou! Hezký vikend.

언어 공부 발음 집착

개인적으로 필자는 새로운 외국어 공부를 할 때 발음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발음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신념이 있을 정도이다. 음성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신념을 가지고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사람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언어 공부를 할 때 발음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 다음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발음이 된다면 문법과 단어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발음도 자연스레 터득하게 된다.’

듣고 보니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요즘 어느 방향, 어느 신념이 맞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자신은 어떻게 외국어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지 생각을 나눠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아이슬란드어를 좋아하는 이유

건드려본 언어들 나열해보기

ㅁㅊ! 도쿄와 서울의 인구밀도 비교

한자에 대해서-외국인이 배우기 얼마나 어려울지, 한자 특집!

체코어 아노 네

띵곡 플레이리스트

히카리 레일스타 임시열차 정차역

<https://www.youtube.com/watch?v=Ys9oEfQmUU8>

대치동에서 만난 친구들

논리학

야민정음이 한글 파괴인가

언어를 문화생활로 즐기자

지킬

귀가 직후 분당에서 학원 스케줄이 있었지만 귀가 버스를 집으로 신청하는 바람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강남역으로 가 신분당선을 타고 분당으로 갔다. 덕분에 거의 5년 만에 신분당선을 타 볼 수 있게 되었다.

누가 강남역 아니랄까봐, 역시 구내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신분당선 승강장은 2호선 승강장보다 훨씬 남쪽에 위치해있어 지하 강남역 쇼핑센터를 거쳐갔는데, 몇 달 간 강원도 횡성에 갇혀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사람들로 붐비는 곳을 찾은 필자는 기분이 좋아졌다. 강남역이나 삼성 코엑스 같은 곳을 가면 볼 수 있는 엄청난 인파, 활기찬 분위기, 휘황찬란한 빛은 횡성의 숲보다 좋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횡성군민에서 서울시민으로 돌아온다면, 맨날 코엑스나 강남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신나게 놀 듯 하다.

신분당선 승강장에 들어섰는데 열차가 이미 입선해있었어서 에스컬레이터를 뛰어내려가 바삐 탔다. (여기서 잠깐! 열차 출발 멜로디나 안내방송이 나올 때에는 열차가 잠시 후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겠다는 뜻이므로 되도록이면 다음 열차를 타자. 이를 일본 철도 용어로 駆け込み乗車라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열차의 지연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1호선, 4호선은 열차 배차 간격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면 다음 열차를 타도 된다. 일본 간토 지방에는 보통 열차들이 직통 운전을 많이 하는 데다가 열차 등급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승차하다가 인신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최소 3개의 노선은 마비된다.) 다행히 강남역은 신분당선의 시종착역이기 때문에 정차 시간이 길었고, 탑승 후 약 2분 후에 발차했다. 안타깝게도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신분당선은 기본적으로 무인자동운전이기 때문에 양쪽 끝에 기관실이 위치해 있지 않아 열차 앞뒤로 뚫려있는 창으로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물론 이는 철도 덕후에게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3호차에 급히 탑승한 필자는 열차 맨 앞으로 이동해 창 바로 앞 자리를 선점했다.

일부 특급형 객차를 제외한 일본 재래선 열차들은 한국의 열차들과 달리 맨 앞 기관실과 객실이 통유리로 분리되어 있어 객실에서 앞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일본에서는 보통 前面展望(전면전망/이 글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유투브에 이를 쳐보면 무슨 느낌인지 알 것이다.

전면전망은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무인운전이라 터널 내에 신호기가 거의 없었지만, 분리기나 간간히 나타나는 신호들을 보는 재미가 있었다.

승차감은 나쁘지 않았으나, 일반 열차와 달리 발차할 때 단계적으로 가속이 기계적으로 붙는 것이 신경이 쓰였다.

청계산입구역~판교(판교테크노벨리)역 구간은 역간거리가 꽤 길었다. 운행 중간에 전광판을 찍었는데 남은 거리가 6km라고 나온다. 최고 속도는 90km/h를 유지했다.

이 구간 중간 쯤에는 승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무지개 색으로 터널 전등들이 색칠되어 있었다.

광교행 기준으로 무지개 구간 초입에서는 下り勾配(일본 철도 용어; 한국어로 직역하면 내리막 구배)가 30퍼밀은 족히 되어보였다. 생각보다 꽤 가파른 경사였지만 한동안 직선 구간이 계속되었기에 속도는 90km/h를 유지했다.

판교역의 한자가 板橋더라. 일본과 타이완에도 각각 JR 동일본 사이쿄선 (埼京線) 이타바시역(板橋駅)과 타이완 철로관리국 종관선 (臺灣鐵路管理局縱貫線), 타이완 고속철도 (臺灣高速鐵路), 타이베이 첩운 반난선 (臺北捷運板南線) 반챠오/팡쿄(대만어 발음)역(板橋車站) 같은 한자를 쓰는 역이 있는데, 신기했다.

판교역 도착 안내방송에서 경강선 환승 안내를 하더라. 이매, 여주역 방면이라고 안내를 했는데, 신설 노선이라 아직 낯설다. 횡성이 있는 동안 수도권 노선도에는 아직 건설 추진 중인 줄로만 알고 있던 경강선, 서해선 (소사원시선) 등이 벌써 개통을 했더라. 깜짝 놀랐다.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같은 구간을 탔다. 정자역에서 판교역 가는 구간에서 上り勾配(오르막 구배)가 꽤 가팔랐다. 아마 정자역에서 분당선 승강장 밑을 통과하느라 당시 무환승역이었던 판교역보다 비교적 깊은 곳에 건설되었던 것 같다. 깊게 지어진 지하철이라면 도쿄 도영 지하철이 정말 유명한데, 나중에 한 번 타보고 싶다.

신분당선은 강남~정자역을 16분 만에 주파한다. 실제 주행 시에는 그리 빠르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16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버스나 타 교통수단에 비해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근 버스로도 30분~1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인데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노선이다. 서울 구간에서는 양재역에서 3호선과 연계되고 강남역에서 2호선과 만나면서 종착하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부로의 접근성 면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한 블럭만 위로 가면 9호선 급행 정차역인 신논현역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연장되었더라면 9호선 급행과 연계해 서울 서부로의 접근성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수한 노선이 되었을 것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신분당선 3차 연장(2차 연장은 노선 남쪽 정자~광교)을 추진 중에 있다고는 하는데,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서울시 측 간 입장 차이가 너무 심해 지금 계획이 보류되고 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서울역 루트를, 서울시에서는 명동~서울시청 루트를 주장했지만 후자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결국 용산~서울역 루트로 정해졌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이다. 현재 서울의 동서를 이어주는 급행 노선은 9호선이 수행하고 있지만 강남과 강북 도심 지역을 빠르게 이어주는 도심 노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강남에서 서울역이나 시청 쪽을 가려면 남산 2/3호 터널을 경유하더라도 교통 체증이 심각한데, 본래 급행 노선으로 건설되었던 신분당선이 북쪽 연장을 통해 강남~강북 급행 노선으로 제 역할을 확장한다면 정말 황금 노선이 될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만큼 신분당선 측에서도 그 중요성을 미리 인지하고 충분한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9호선은 서울 동서를 잇는 노선으로서의 중요성을 안고 있지만 급행 열차의 4량 운행으로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서고 있어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9호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신분당선은 황금 노선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해본다.

듀오링고에서 한국어 시험을 봤는데, 그 결과는…

레벨 8에 배정이 되었다..



내가 과거시제와 숫자에 약하다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한다.

전 분명 원어민인데 무슨 소리죠?

뭔가 GitHub 블로그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을까 고민하면서 인터넷에 GitHub에 대해서 검색하던 중, GitHub에 기반을 둔 HTML 웹사이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GitHub가 오픈소스 저장 및 공유의 목적으로 주로 쓰이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필자와 같이 직접 코딩해 사이트를 개설하고 블로그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몇몇 블로그들을 돌아다녀봤는데, 대부분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 블로그였던 것 같다. 하긴, HTML과 CSS, Ruby, Python, JavaScript, Node.js 등으로 직접 코딩 작업을 하고 GitHub Repository를 파서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조금이라도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 중에 몇몇 블로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언어학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언어학 카테고리의 대부분의 글들은 전산언어학 (자연언어처리, 딥러닝 등)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마침 요즘 전산언어학이 독학하고 싶어져 現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이자 ‘언어학개론’의 저자인 강범모 교수님이 쓰신 ‘언어, 컴퓨터, 코퍼스 언어학’이라는 책을 구입했는데, 블로그에서 본 글들 모두 굉장히 흥미로워 보였다!

그런데, GitHub 블로그들 모두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쁘고 독특했다. 최대한 세련되게 만든다고 머리를 쥐어짜며 만든 이 블로그이지만 자괴감이 들 만큼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다. 아직 HTML과 CSS까지밖에 공부하지 않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조금 더 공부해 조만간 디자인 개편을 해야겠다.

인터넷 검색 중 GitHub에 기반을 둔 ‘지킬(Jekyll)’이라는 blog-aware, static site generator (대강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못 하겠다 :( )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이것도 어서 시작해보고 싶어졌다.

수능이 끝나면Python을 독학해 Jekyll로 이 블로그를 이전할 것이며, GitHub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도 더 공부를 해볼 것이다. (GitHub 사용자는 맞지만, 고작 해봐야 레포 파고 Terminal에 status, add, commit, push 명령 정도밖에 입력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상 GitHub 초짜다.) 생각해보니 수능 끝나고 굉장히 할 것이 많다. 다음 게시물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오늘 정말 몇 달 만에 지하철을 타보았는데, 운이 좋게도 2호선 신차를 잡을 수 있었다! 스크린도어 너머로 보이던 열차의 겉모습부터 2호선의 일반 열차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새하얀 알루미늄 차체가 눈길을 끌었다.

아쉽게도 제조사/제조년도 팻말과 열차 편성 팻말은 못 찍었다. (신차를 보고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인터넷에 찾아보니 현대로템이 아닌 다원시스 제작이며, 반입일자 기준으로 2017년 반입 열차는 206~210번, 2018년 반입 열차는 211~213, 239~242, 285~286번으로 운행된다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206편성 열차는 실제 표기를 D206과 같이 한다고 한다. 이유는 현 206편성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실제로 현재 2호선에는 저항제어 전동차 중 206편성 번호를 달고 달리고 있는 열차가 있다고 한다. 저항제어는 이제 정말로 폐차할 때가 왔는데 굳이 신차에 D까지 붙여서 운행시키는 것을 보니 앞으로도 저항제어 전동차는 계속 달릴 운명인가 보다. 이 정도면 1989년 도입한 JR 서일본 221계 1차분 열차도 몇 년 전 완전히 개조를 시켜 아직까지 JR 교토선, 고베선 등지에서 쾌속으로 잘 굴려먹고 있는 일명 ‘짠돌이’ JR 서일본이 연상된다. 사실 JR 서일본의 짠돌이 기질은 히로시마 권(인구 110만) 노선(広島シティーネットワーク)에서 더 잘 드러나는데, 일례로 구형 전동차를 몇 번이나 개조를 시키면서 오랫동안 굴리다가 자그마치 30년 만에 신차(JR 서일본 227계 전동차)를 등장시키기도 했다. JR 동일본이 니가타 권(인구 80만)에서 굴리는 신식 열차들과 너무나도 대비된다.

개조하니까 생각난 건데, 옛날 국철은 JR 서일본보다 한 수 위인 마의 개조를 보여주었다. 바로 419계 전동차. 애초에 특급형 전동차를 근거리 통근열차로 개조해야겠다는 발상을 한 것부터가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JR 서일본은 사실 굉장히 불쌍한 철도 회사이기도 하다. 혼슈의 서쪽 끝 시모노세키(下関)부터 멀리는 나가노 현(長野県) 미나미오타리(南小谷)(이 역부터는 JR 동일본 관할이기때문에 치바/도쿄/신주쿠에서 출발하는 몇몇 특급 아즈사 호가 미나미오타리 종착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까지 정말 넓은 영업 구역을 지닌 JR 서일본이지만 실질적 주력 노선들은 모두 간사이 지방(오사카(大阪), 교토(京都), 나라(奈良))에 몰려있는데, 하필 이 지방이 일본 전국에서 철도 노선 간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다. 16대 일본 대형 사철 중 5개가 특히 고베-오사카-교토 구간에 모여있는데, 이러한 과도한 경쟁 구도가 결국 일본 사상 최대의 철도 사고인 2005년 JR서일본 후쿠치야마선 아마가사키 역 탈선 사고(JR福知山線脱線事故)(사망 107명, 부상 562명)를 낳기까지 이른다. 이 사건 이후 사철-JR 간 경쟁에 일단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JR 서일본이 다른 JR 회사들에 비해 충분한 실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JR 서일본의 그 유명한 최고영업속도 130km/h의 신쾌속(新快速) 등급도 실은 JR 서일본이 자사가 다른 사철에 비해 철로 선형이 좋은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속 수송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쓰다보니 JR 서일본에 대한 내용이 너무 길어졌는데, 본론으로 돌아가겠다. (이는 필자의 한국 철도에 대한 지식 부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사진들은 고작 해봐야 3장 밖에 안 된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아직 철도 문화가 자리잡고 있지 않아 실제로 지하철 안에서 열차 사진을 찍고 있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 사진들도 사람들이 필자 쪽을 보고 있지 않을 때 빨리 찍은 것이다.

먼저,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열차 출입문 양쪽 옆에 긴 LED 봉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역 도착 전 30초 가량부터 열리는 문 쪽 빛이 초록색으로 반짝이며, 역 도착 후 출입문이 열리면 노란색으로 바뀌어 깜빡거린다. 매우 마음에 든다.

이 사진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열차 일부에 아직 (구) 서울메트로 로고가 박혀있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가 서울교통공사로 합병되기 전 만들어진 편성, 즉 아마 2017년 반입된 206~210편성을 탄 것으로 추측된다. 2018년 도입된 열차도 이 마크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려나?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LCD 안내판이다. 한 쪽에 총 2개의 LCD 안내판이 달려있는데, 이 중 하나는 2호선 노선도를 계속 표시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주행 중, 역 도착 시 화면이 계속 바뀐다. 특히 이 사진들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환승 안내 시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사람이 많아 가장 중요한 열차 외부와 전반적 내부 사진을 찍지 못했지만 신차를 잡게 된 것 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fsSpbEJEe5c

<https://www.youtube.com/watch?v=H7i5W1J218s> 두 번째 영상

별 안내방송을 다 한다...

수능 후 할 일, 갈 곳 목록

수능 후 할 일들을 정리해봤다.

-Python, JavaScript 공부

-C 공부 (C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이므로)

-Jekyll로 블로그 이전해서 관리

-블로그 디자인 Python (JavaScript)로 갈아치우기, 탈CSS 이룩하기

-체코어 독학 본격적으로 시작

-아이슬란드어 독학 재개

-스웨덴어 독학 재개 (덴마크어와 공부 병행)

-일본어 N1 공부 & 취득

-일본 현지 중고등학교 ‘国語 (국어)’ 과정 인강 등으로 공부 후 일본의 センター試験 (한국의 수학능력검정시험, 수능과 상응) ‘国語 (국어)’ 과목 기출문제 (現代文(현대문)・古文(고전)・漢文(한문) 세 부문 모두) 도전해보기

-약 2주 간 혼자서 일본 철도 여행: 일본 열도 최북단(北海道稚内市宗谷岬 홋카이도 왓카나이시 소야 곶)과 최동단(北海道根室市納沙布岬 홋카이도 네무로시 노삿푸 곶) 찍고 도호쿠 지방을 거쳐 도쿄로 내려와서 관동 지방 철도 투어로 마무리 (오직 재래선으로만 이동)

-레드벨벳 콘서트 가기

...수능 끝나면 지금보다 더 바쁠 듯 하다.

심ㅈ1ㅇ



https://flyteam.jp/airport/nakashibetsu-airport/airline\_route#domestic

이건 정말 역대급 ㅁㅊ이다. 이것을 딱 보고 필자는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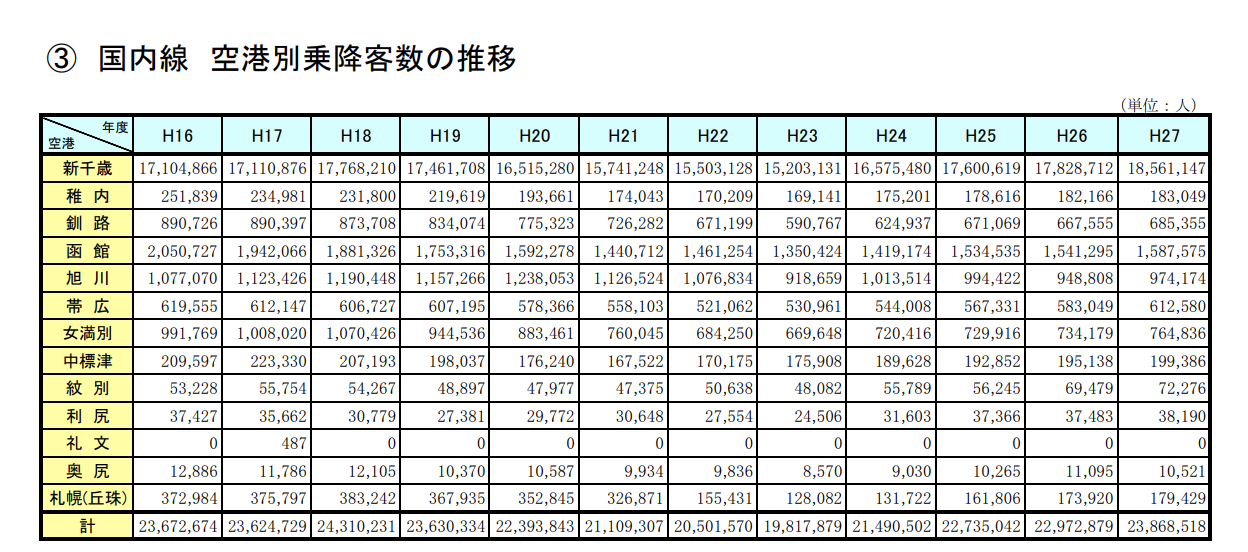
나카시베츠에서 고마키(나고야)로 취항하는 것은 백보 천보 양보해 이해해줄 수 있다지만, 도대체 마츠모토, 후쿠시마, 야마가타, 우베, 시즈오카, 히로시마, 고마츠, 하나마키는 왜 취항하는 것일까? 게다가, 저 밑에는 나카시베츠에서 대만의 타이베이도 취항한다고 한다. (…)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된다.

아, 설명을 읽어보니 과거에 취항했던 노선/취항 예정이었던 노선까지 적혀있다고 한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래, 솔직히 나카시베츠 – 하나마키나 나카시베츠 – 가고시마는 심해도 너무 심했다. (차라리 나카시베츠 – 오비히로가 더 현실성 있어 보인다.)

근데 이용객 수 자료를 찾아보니 충격적이다.

나카시베츠 연간 공항 이용자 수가 오카다마 공항보다 많다!



충격적이다.

연플리 에이틴 여주인공(이름: 도하나)이 너무 좋아졌다. 가끔 심심할 때면 그 신인배우 분의 인스타에 접속해 넋을 놓고 서핑하기도 한다. ‘도하나’라는 그 가상의 캐릭터가 특히 정말 좋다. 나의 이상형에 정확히 맞는 사람은 거의 처음 본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스크린 속의 아름다운 세계와 현실과의 괴리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스크린 속 그들이 정말 부럽다.

행복한 삶, 설레는 연애 경험들.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상 속 이야기들.

연플리 에이틴 속 가상의 현실에 몰입하면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과거 몇 년 간의 내 모습이 정말 수치스럽고 한심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꿈꾸고 있을 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 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다.

아무런 속박과 헌신, 마음고생, 설렘, 부끄러움, 헛된 기대와 희망이 없는, 홀로만의 독립적인 미래를 살고 싶어졌다.

너무 힘들다.

수능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뭐가 이것저것 많다.

사실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수능이 아니라 수시인데, 이 또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인가.

그냥 너무 힘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방금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다.

아이슬란드 라디오를 듣던 중 어떤 노래가 나왔는데, 잘 들어보니 어딘가 이상했다. 분명 아이슬란드어에는 없는 ʐ 음운과 비음이 계속 나와 유심히 들어보니 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 슬라브어족 언어였다. (처음 듣고 러시아어인가 싶을 정도로 ʐ음운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내가 아는 슬라브어족 언어 중 비음 모음이 있는 언어는 폴란드어밖에 없다. 혹시나 해서 위키피디아에 아이슬란드 인구 구성을 찾아보았는데 인구 전체의 91%는 아이슬란드인이고 나머지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인종이 폴란드인이라고 한다. (전체의 약 4%, 14,000명 정도) 예상이 적중했다! 굉장하다. 아마 폴란드인들을 위한 고향 노래를 틀어주고 있었나보다.

아 근데 정말 진심으로 아이슬란드어가 하고 싶다. 수능과 자소서 준비 때문에 정말 억지로 안 하고 있는데 이젠 미쳐버릴 것만 같다. 너무나도 아이슬란드어가 좋아서 이해하지 못해도 아이슬란드어를 듣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정도다. 컴퓨터도 아이슬란드어로 설정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컴퓨터를 못 쓰게 될 것 같아 무서워서 못 하고 있다. 대신, 페이스북과 구글은 아이슬란드어로 사용하고 있다. 공부할 때에도 아이슬란드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고, 쉴 때에도 유투브에서 아이슬란드어 영상을 찾아본다. 아 모르겠다 근데 아이슬란드어가 너무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미쳐 돌아버리겠다아아악. 조만간 아이슬란드어가 왜 아름다운 언어인가에 대해 글을 올려볼까 한다. 여러분들도 고작 인구 30만이 쓰는 언어라고 무시하지 말고 어서 빨리 아이슬란드어를 공부해보기 바란다. (인구 30만이 얼만지 잘 가늠이 안 된다고? 2018년 1월 기준 서울시 서초구의 인구는 44만 1088명, 강남구의 인구는 55만 6164명이다.)

하타케 영상 8월 14일 꺼 ‘나고야 현?”

<https://www.youtube.com/watch?v=iact09KVhjk>

<https://www.youtube.com/watch?v=Bkglp6TtaaM>

일본어 장음: 장음 위치에 따라서 악센트가 달라진다

체코어 장음: 위치에 상관없이 악센트가 맨 앞에 무조건… 너무 어렵다

Weather forecast in Slavic languages

2018년 주니어 유로비전, 아니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하는데 벨라루스 팀이 러시아어로 노래를 부른다고???

프랑스 노래 좋다ㅜ

마케도니아 노래 이름이 Дома인데 뜻을 바로 알아버렸다 ㅎㅎ

솔직히 슬라브 언어 하나 하면 ㄹㅇ 사기

**Dev\_diaries**

SS 1127 꽤나 고생…

SS 1129 재도전! 142824 이제 absolute 포지셔닝을 어떻게 쓰는건지 좀 알겠다.. 자식 상속하는 부모 기준으로 자식을 특정 방식으로 배치하고 싶을 때 걍 무조건 쓰면 오케이, 근데 vertical-align이 블럭 엘리먼츠는 안 된다는건 좀 놀랐다 새로 알게 됨..

143130 nav 바 만드는 중~ 생각보다 수월히 끝남 이제 hover selector만 더해주고 손만 좀 보면 끄읕 글꼴 적용 어카지 근데..

아 잠만 hover 적용하는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다..143831 .navIcon 클래스 hover하면 .navLink가 display: none에서 block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navIcon이 .navLink의 부모 클래스가 아니라 안 된다… 그럼 걍 temp 클래스 div로 둘 다 감싸서 해야 하나.. 아악

망했다 temp도 안 된다. 생각해보면 될 리가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navIcon 클래스 이름 바꿔서 .navLink의 부모 클래스로 다시 정의하는 수밖에.. 그럼 밑에 css도 다 바꿔야하잖아.. 아악

145914 와씨 드뎌 됐다.. 이거 어케 했냐면 ul 감싸던 div 태그 걍 없애고 ul랑 img랑 바로 맞닿게 한 다음에, ul display를 none으로 해놓고 .navIcon: hover일 때와 ul:hover일 때에만 ul display가 block이 되게 했다! 약간 얌체같지만 제대로 작동하기만 되면 상관없지 않은가! 대신 ul랑 img 맞닿게 하려고 img 주변에 20 픽셀 씩 margin 줬던 거 padding으로 바꿔줬다.

드디어 당초 계획했던 기능 완성! 디자인적 요소를 이제 손 볼 차레다. 애니메이션은 나중에 추가하는 걸로!

잠만 지금 큰일났다 152034 navBar에다가 position: fixed를 걸어줬는데 갑자기 위치가 이상하게 됐다. 뭐지?? 뭐가 문제지 분명히 ul li a 모두 inline-box 잘 정의되어 있는데..

154042 아니 잠시만.. An inline element whose position is set to absolute or fixed, obtains the capabilities of the block-level elements. 도대체 왜?? 아니 그럼 inline element를 fix 못 하는건가? 말이 되나..

161043 어쩔 수 없이 땜빵으로 메꿨다 (ul에 fixed 적용)

걍 리셋해야겠다.. 땜빵에 뺌빵이 계속되니 너무 코드가 더러워진다.

일단 지금까지 해놓은 CSS는 그래도 좀 아까우니 주석 처리 해놓고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그리고 <nav> 자손으로 div 하나가 전체를 감싸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 있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다. 지우고 nav 자손으로 img와 ul만 있는 간단한 구조로 다시 해야겠다. 네비게이션 바 디자인하는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ㅁㅊ… 됐다..! 画面収録20181129220929 아까랑 똑같이 position: fix 부분에서 막혀버렸다. 그래서 stackoverflow 웹사이트에 질문을 올려볼까 하다가 크롬 한쪽에 켜져있던 Google Fonts 웹사이트를 실수로 켰었는데 이 사이트의 상단 메뉴바가 눈에 들어왔다. 스크롤을 굴려보니 <https://fonts.google.com/?category=Sans+Serif&sort=popularity> 역시 position: fixed된 네비바였다. 반사적으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소스 코드를 켜서 css stylesheet으로 들어가 Ctrl+F를 누르고 #header을 찾았다. 예상대로 position: fixed 구문이 있었는데, 옆에 position:fixed;left:0;right:0;top:0;height:64px;z-index:60 이 구문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까지 fixed 정해줄 때 left와 top만 지정해줬는데 여기에서는 left right top 다 0으로 지정해준게 신기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소스코드로 돌아와서 똑같이 쳐봤는데.. 된다!!!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쳤다.ㅎㅎ

223249그리고 hover 기준을 nav 바로 해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ul의 display가 none이어도 nav 영역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ul이 떠버리는 오류가 났는데, 고심 후 nav 바로 안에 전체를 감싸는 div을 넣어 div를 기준으로 삼으니 바로 되더라.

121248 z-index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고 opacity와 background-color: white로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완벽하게 구현했다. 네비 바 코딩하는 데에만 꼬박 하루가 걸렸다… 참 힘들다.

121457 121501 121503 완성작! 마우스가 안 찍혔는데 hover의 효과를 담아내려 했당

근데 Inspector 한 번 키거나 F12로 코드를 보면 사실 저 네비 바에는 약간의 큰(?) 눈속임이 들어가있다. 처음 코드를 구상할 때에는 img:hover 하면 nav에 opacity와 background-color 효과를 더해주려고 했는데 css코드를 직접 짜보니 그게 불가능했다. Nav 바가 img와 ul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그 효과를 그냥 두 부분 각각에 적용한 다음에 ul padding을 img 세로 길이와 같게 교묘하게 맞춘 것이다. 사실 이런 코딩 정말 찝찝해서 싫어하는데 이게 최선이다..

그리고 img에 opacity를 적용할 때에도 아이콘 뒤 배경에만 Opacity 적용하려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 작업을 하려면 div를 또 감싸고 따로 효과를 지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걍 그건 안 하기로 했다.

자 이제는 모바일/테블릿 버전을 작성할 차례!

도대체 왜 margin: 0 auto;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top-nav div a 속에 img가 포함되는 형식인데, img를 중앙 정렬하기 위해서 처음에 img 주변에 margin: 10px auto;를 지정해줬는데 아무리 해봐도 얘가 움직이질 않는다;;

1203 12708 왼쪽에 낑긴 img.

구글에 ‘css margin auto not centering’이라고 치고 조사를 해보니 정확히 오류의 원인은 못 찾았지만 해결책은 찾았다. 12829

그래서 하라는 대로 img를 inline-block으로 바꾸고 div a에 text-align: center;을 더했더니 마법같이 됐다!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으니, 바로 text-align property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inline element면 다 적용이 된다는 것!

13057 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정말 이상하다. 분명 ul과 li는 저 밑으로 가 있는데 왜 li의 텍스트는 다 위로 가 있는거지? 코드를 유심히 보니 치명적 실수를 발견했다. (13247 13305) 앞에서 정의한 div a가 div ul li a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다. 역시 클래스와 아이디는 그냥 있는게 아니었다.

클래스와 아이디 함부로 정하면 큰일 나더라. Viewport를 1060px 뿐만 아니라 그 이하로도 또 정할 것인데, viewport 범위마다 다른 아이디와 클래스를 정해버리면 겹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생겨서 코드가 정말 엉망이 된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아예 1061px 이상의 viewport를 또 따로 정해버렸다.

21224 잔오류를 고치니 금방 됐다!! display와 position으로 전체적인 구성을 잡는 코딩은 이제 쉽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잔오류들이다.

이제 hover effect만 다듬으면 완성일 것 같다.

지금은 중간 main 부분의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리 큰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111410 list-h1-sect 정의해주는 저 부분을 지금 주석 처리를 해놓았는데 저 주석을 풀면 list-h1과 list-h3가 겹쳐버린다. 문제의 이유를 찾고 있다. 뭘까..?

111834 block element끼리는 겹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되지..? 결국엔 그냥 position: absolute로 미봉책을 썼다. 이 방법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중간에 tab 네비게이션을 넣으려 했는데 꽤나 고도의 Javascript 기교가 필요한 듯 하다. 이번 StyleSheet 2.1업데이트에서는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다.

113458 아직 큰 문제는 없음. 순조로운 진행~

드디어 position: absolute의 미봉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120222 list-h1 섹션, h3 섹션, 그리고 ol이 들어있는list- main 섹션을 모두 absolute로 부모 main에 대한 상대적 위치로 정해주었는데, 이 다음 main 안에 footer을 넣으니 이런 대참사가 난다. 아까 block element끼리 겹치지 말아야 하는데 왜 겹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바로 얘네가 다 absolute로 부모에 대한 상대적 위치가 절대적으로 정해져서 그런 것이다.

어차피 block 엘리먼츠니까 absolute는 지워줘도 된다고 판단해 지워보니 footer가 제자리를 찾아간다. 120453 짠!

121305 드디어 컴퓨터 버전 list-page.html을 최종 완성했다!!!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예쁘게 나와서 기분이 좋다.

이제 모바일 버전을 손 봐야 하는데.. 121405 고쳐야 할 건 좀 보이지만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다. 처음 코드를 짤 때부터 구조를 잘 잡아놔서 그런 것 같다.

<https://www.youtube.com/watch?v=IuICNwKwDpk>

슬로베니아어 부분을 감상하던 중 왠지 익숙한 단어가 들려서 정신차리니 폴란드어 ‘najlepszy’, 하지만.. 이런 꼴은 슬로베니아어에 없다

같은 뜻 제일 비슷한 발음은 nàjbóljšimi이건데.. 까비!

<https://en.wiktionary.org/wiki/najboljši#Slovene> 참고

도브리 최상급 꼴들 동남서 슬라브 언어들 공통꼴

슬로베니아어 정자법 왜 첨보지 근데..

근황; 롤을 시작했는데 아직은 html css js 코딩이 롤보다 재밌다.

롤이 아직 너무 초보라 그런가 보다.

<https://www.youtube.com/watch?v=ACRxHAC-tyg>

이 영상은 두 일본의 정치가가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혐한 발언)에 대한 토론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왼쪽의 사람은 19대 오사카 시 시장이자 52대 오사카 부 지사(大阪府知事)였던 민진당(民進党) 출신 하시모토 도루(橋下徹)이며, 오른쪽의 사람은 전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재특회(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在特会)’ 대표이자 현 일본제일당(日本第一党) 대표인 극우 성향 정치가~~이자 일본 혐한 세력의 뿌리~~ 사쿠라이 마코토(桜井誠)이다.

<https://toyokeizai.net/articles/-/235686>

<https://toyokeizai.net/articles/-/230136?page=2>

<https://toyokeizai.net/articles/-/237842?page=3>

http://yoyoyo43232.blogspot.com/2018/02/blog-post\_96.html

수능 문법 하면서 느낀점: 한국어는ㄴ 어렵다, 김동욱문법 33페이지\\

ㅁㅊ

방금 방탄 컴백 앨범을 듣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다! 일단 이번 앨범에 대한 소감은 나중에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다.

2016년 ‘화양연화: Young Forever’앨범의 수록곡 중 ‘Save Me’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2017년 ‘Love Yourself’ 앨범 시리즈가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 공개된 포스터 중 이런 것이 있었다:

(Pinterest에서 퍼옴)

Save me를 거꾸로 하면 I’m fine이라는 글자가 되는 포스터.

그런데, 이번 앨범의 수록곡 중 ‘I’m Fine’이라는 곡이 있다. 아니나다를까, 이 곡은 ‘Save Me’의 주 반주로 시작한다. 한 번 코러스가 끝나자마자 작게 테이프 감기는 소리가 들리면서 본 곡이 시작되는데, 계속 듣고 있다 보면 특정 반주가 배경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0초부터 RM이 랩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그 반주가 선명하게 잘 들린다. 그런데, 듣고 있다 보니 순간 이상한 ‘삘’이 꽂혔다. 일단 곡 초반에 나오는 ‘Save Me’의 반주의 음을 들리는대로 적어봤다.

B5 B B A F# (쉼) (E) F# A F# E (F#) E D B4

온라인 피아노 시뮬레이터를 켜서 이것을 거꾸로 쳐보았다.

‘삘’이 적중했다. ‘I’m Fine’에 계속 나오고 있던 반주는 ‘Save Me’의 것을 거꾸로 재생한 것이었다!

심지어 ‘Save Me’에서는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내 손을 잡아줘’라는 가사가 등장하는데 ‘I’m Fine’에서는 ‘이젠 내 손을 놔도 괜찮아 I’m fine’이라는 가사가 있다.

작년에 나온 포스터를 시작으로 반주와 가사까지 정확히 대비시켜 내는 것이 놀랍다. 방탄의 세계관과 앨범 간의 이야기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분명 심오한 뜻이 숨어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흔히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은 아이돌이 아니라 아티스트다’라고들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작년에 Love Yourself 기승전결 트레일러를 보고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고 방탄에 입덕했는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 세계관, 퍼포먼스, 뮤직비디오, 그리고 음악과 음악, 앨범과 앨범 사이의 숨겨진 이야기들.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폴란드어 첫인상 이모저모

체코어를 공부하다가 폴란드어로

**폴란드어 공부**

체코어 공부를 하다가, 이왕 체코어 하는 김에 그냥 폴란드어를 하자고 결심해 폴란드어로 갈아탔다. 폴란드어가 정자법도 굉장히 흥미로워 보였을 뿐만 아니라 발음도 체코어보다 더 맘에 들었다.

폴란드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첫인상이 강렬하게 남는다. 정말 단어들이 w, s, z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단어들 스펠링이 괴랄하다.

근데 이게 사실 틀린 말이 아니다. 유엔 인권 선언의 폴란드어 버전 첫 단어가 zważywszy인데, 발음이 ‘즈바줴브셰’이다.

실제로 발음법도 어려워서 완전히 습득하는데에 1시간은 족히 걸렸던 것 같다.

폴란드어 발음법을 배우고 싶다면 이 영상을 추천한다. 음질이 좋아 발음이 잘 들리고 각 알파벳마다 예시 단어들 3개를 보여주기 때문에 발음 습득하기에 좋다.

<https://www.youtube.com/watch?v=20pDtDSqT3Y&list=WL&t=0s&index=467>

정말 전형적인 슬라브 언어이다. 파찰음이 굉장히 다양하다. 체코어보다 많아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다. 특히 rz, sz, cz, ś, ć, ż를 보고 치경구개 파찰음인지 권설 파찰음인지 구별해내는게 헷갈렸다. 이참에 다음 표로 정리해보았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다.

(표)

한국어 용어에 이제 슬슬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아 영어 용어와 병기해놓았다.

그리고 위키피디아 ‘Help: IPA/Polish’ 글에서 보충 설명을 찾았는데 읽어보길 바란다:

The letter ⟨i⟩, when it is followed by a vowel, represents a pronunciation like a ⟨j⟩ or a "soft" pronunciation of the preceding consonant (so *pies* is pronounced as if it were spelt ⟨pjes⟩). It has the same effect as an acute accent on alveolar consonants (⟨s⟩, ⟨z⟩, ⟨c⟩, ⟨dz⟩, ⟨n⟩) so *się*, *cios* and *niania* are pronounced as if they were spelt ⟨śę⟩, ⟨ćos⟩, ⟨ńańa⟩. A following ⟨i⟩ also softens consonants when it is itself pronounced as a vowel: *zima*, *ci* and *dzisiaj* are pronounced as if they were spelled ⟨źima⟩, ⟨ći⟩, ⟨dźiśaj⟩.

아마 러시아어를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soft consonant같은게 뭔지는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현상,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게 낯설어 할 필요는 없다. ‘소’와 ‘시’를 발음하면서 ‘ㅅ’의 조음 위치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직접 폴란드어 발음을 연습해보니 폴란드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체코어를 듣고 왜 어린아이들 장난처럼 들린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보통 체코어 형용사가 남성형일 때 -ý로 끝나 ‘이’를 길게 뺀 발음이 나는데, 같은 단어 폴란드어 형용사는 보통 -y로 끝나 ‘으’ 발음이 난다. 애초에 체코어에서는 y를 i와 같은 전설 고모음으로 발음하지만 폴란드어에서 y는 거의 슈와처럼 읽히기 때문에, 폴란드어 입장에서 체코어는 밝으면서 어린아이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다.

앞으로 폴란드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체코어는 폴란드어 어느 정도 하면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본다.

제대로 된 언어 공부란?

“넌 한국인이니까 선어말어미 -시- 외울 필요 없다고! 그냥 동사 떠올리고 그걸 높임법 적용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생각만 하면 바로 알 수 있잖아”

**제대로 된 외국어 공부란?**

수능 국어 인강을 듣던 중 흥미로운 말을 듣고 문득 생각

<https://www.youtube.com/watch?v=7kNYlpITuNc>

먹방

**아이슬란드어가 아름다운 이유**

아이슬란드어가 아름다운 이유를 잠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r 음운이 보통 unvoiced r로 발음되어 r을 말할 때마다 경쾌한 소리가 나고, 특히나 aspirated consonant가 많아 아이슬란드어 대화를 들어보면 유독 거센소리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떨 때에는 입에서 공기가 터져나오는 쉬-쉬-밖에 안 들리기도 한다. 또한 unvoiced 자음으로 자음이 음운 변화하는 경우가 많고, g가 어말에 올 때 [ɣ]로 변화하는 것으로 인해 언어 자체가 경쾌하게 들리는 것 같다.

어쨌든 아이슬란드어가 좋다!

<https://www.youtube.com/watch?v=-MTRxRO5SRA>

Khan Academy

사회문화 5주차 1강 22분

<https://www.youtube.com/watch?v=3Fg3MNUDbKo>

Kazuya Channel이라는 일본 유투브 채널이 있다. 최근 일본 국내외 이슈들을 다루는 영상들을 올리는데, 구독자 수는 57만 명이고 조회 수는 많으면 30만까지 올라가는 중형급 채널이다.

처음 이 채널을 접하게 된 것은 일본의 어느 정치적 이슈에 대한 영상을 다룬 영상이 (아마 아베의 森友学園 비리에 대한 영상이었던 것 같다) 유투브 재팬 급상승 영상 페이지에서 봤을 때였다.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의 영상을 간간히 봐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채널에 엄청난 회의감이 들었다. 조금 과장을 보태 모든 영상들이 전형적인 일본 중도 우익~우익의 관점에서 朝日新聞 (아사히 신문)과 한국, 가끔 중국을 까는데 바쁘더라. 물론 이성적인 관점으로 영상들을 보려고 노력하는 필자지만, 필자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툭하면 아사히 신문을 까고 한국을 까는게 감정적으로 정말 화가 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글을 작성해보도록 노력하겠다. 물론 어디까지나 모두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 노력했다.

먼저, 이 영상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욱일기 자체의 이슈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상자위대를 대표하는 문양으로 욱일기를 사용하고, 욱일기를 게양한 군함을 한국에 보내는 데에는 일본이 정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대신, 우리가 일단 비판하고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현재가 아닌 과거라고 생각한다. 독일과 달리 전후 전범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 욱일기(과거 군기/과거 군함기/과거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욱일기에 한정-욱일기는 사실 일본 내에서는 19세기 즈음부터 풍요와 좋은 기운, 근하신년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음)가 자연스럽게 용인되어 온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고착화되도록 내버려 두었던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독일 제국주의를 상징하던 나치 스와스티카의 사용이 광범위하게 금지되어 독일 내에서도 스와스티카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사회 분위기가 바뀌기는커녕 군기조차 전쟁 당시의 욱일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자신들이 저지른 극악하고 비인간적인 제국주의 전쟁 범죄에 대해 전후 직후 일본이 무책임, 무관심으로 일관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여기서 일부 일본인/일본 언론들은 왜 과거의 일을 자꾸 우리 세대한테 따지고 드냐며 되묻는다. 이에 대한 답을 하자면, ‘근본적인’ 책임은 과거 전후 직후 일본에게 있는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과거 일본이 이 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책임 주체는 현재 세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더라: “욱일기는 한국인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이 담긴 상징인데, 아무리 공식적인 군함기라지만 욱일기를 달고 한국에 오는 것은 너무 몰상식한 거 아니야? 최소한의 배려라도 해 주어야지.” 하지만, ‘상식’과 ‘배려’에 기대는 이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1998년과 2008년 당시 한국에서 국제관함식이 개최되었을 때에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군함에 욱일기를 게양한 채로 입항하여 행사에 참여했었다. 1982년 채택되어 한국과 일본 모두 비준한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국제 해양법’ 제 29조에서는 한 국가의 해상 군대 소속 ‘군함’은 ‘소속 국적을 상징하는 외부 표지’를 달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속 국적을 상징하는 외부 표지’가 없다면 ‘군함’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일본 자위대법(自衛隊法) 제 4조에서는 욱일기를 일본 해상 자위대의 정당한 군기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 102조에서 그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상식’과 ‘배려’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에서만큼은 욱일기를 게양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현대 사회의 국제 관계에서는 상식과 배려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논리만이 통용되는 만큼, 일본을 비판할 때에도 철저히 논리적인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다음은 위에서 언급한 법/규정들의 원문이다:

UNCLOS Article 29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warship" means a ship belonging to the armed forces of a State bearing the external marks distinguishing such ships of its nationality, under the command of an officer duly commissioned by the government of the State and whose name appears in the appropriate service list or its equivalent, and manned by a crew which is under regular armed forces discipline.

自衛隊法 平成三十年六月二十七日公布（平成三十年法律第六十七号）改正

（自衛隊の旗）

第四条

内閣総理大臣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自衛隊旗又は自衛艦旗を自衛隊の部隊又は自衛艦に交付する。

２　前項の自衛隊旗及び自衛艦旗の制式は、政令で定める。

（自衛艦旗等）

第百二条

自衛艦その他の自衛隊の使用する船舶は、防衛大臣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国旗及び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交付された自衛艦旗その他の旗を掲げなければならない。

２　自衛隊の使用する航空機は、自衛隊の航空機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標識を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

３　自衛艦その他の自衛隊の使用する船舶又は自衛隊の使用する航空機以外の船舶又は航空機は、第一項に規定する旗若しくは前項に規定する標識又はこれらにまぎらわしい旗若しくは標識を掲げ、又は付してはならない。

４　自衛艦その他の自衛隊の使用する船舶の掲げる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交付された自衛艦旗以外の旗及び自衛隊の使用する航空機の付する標識の制式は、防衛大臣が定め、官報で告示する。

자, 이제는 이 영상에 대한 비판이다.

먼저, 이 영상의 제목을 보자. ‘韓国の旭日旗アレルギーが非常識な要求に発展(한국의 욱일기 알레르기가 몰상식한 요구로 발전)’이다. 한국이 욱일기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욱일기 알레르기’라고 비하적으로 표현한 것은 역사적인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한국과 다른 식민지 국가들에게 얼마나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 채널의 운영자가 잘 알고 있었더라면 ‘욱일기 알레르기’라는 표현은 입에 담을 수도 없을 것이다.

다음은 내용이다. 우선, 이 영상에서 저 사람은, 정보 전달 채널이라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한국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말도 안 되는 ツッコミ를 넣는 등 감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다음은 영상에서 한 부분을 가져온 것이다.

이 채널은 자막 기능이나 번역 기능 그런 것이 아예 없다. 그냥 직접 들으면서 일일이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치고 번역했기 때문에 보다시피 구어체로 되어 있다.

まぁ、方向性はいいと思います。しかし、韓国のように急激いやってしまうとその弊害も出るっていうのを韓国が示してくれたので、日本は気をつけなければいけない。

(뭐, 방향성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처럼 급진적으로 해 버리면 그 폐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줬으니까 일본은 앞으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한일 관계와는 아무 관련 없는 한국의 현재 이슈를 제시하고 있음. 한국이 얼마나 “몰상식한” 나라인지 시청자를 설득하기 위한 떡밥.

そんな韓国なんですが、慰安婦合意を反故にしたりいろいろと残念なところありますね。ただこれもね、非常識レベルです。あ、わりといつも非常識か。

(그런 한국 말입니다, 위안부 합의도 뭐 허사로 만들고,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몰상식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도 은근 계속 몰상식이었나.)

한국을 까 내리기 위한 ツッコミ.

韓国は旭日旗アレルギーというかそれに類する、似たような旗とかそういうものでも苦情がくるっていう習性があります。だから今の記事は朝日新聞のものなんですけど、朝日新聞の社旗を見たら苦情く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

(한국은 ‘욱일기 알레르기’라고 할까요, 욱일기랑 비슷하게 생긴 게 보이기만 해도 불평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아사히 신문 것인데, 아사히 신문의 회사 마크를 보면 또 불평을 할 것 같네요.)

또 나왔다, ‘욱일기 알레르기’. 아까 것에서 몇 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한국에 대한 ツッコミ를 넣는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욱일기 알레르기’를 설명할 때 ‘습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습성’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한국어와 다른가 싶어서 일본 온라인 大辞林에 이 단어를 찾아봤는데, 역시 다르지 않다. ‘① 動物の行動に現れる、その種に特有な性質。’라고 나온다. 이러한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이 사람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경멸적 인식을 시사한다.

軍旗というのはとても重要なものです。これを掲げていないと、国際法上の特権も得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ね。だからこの話っていうのは極端にいうと、「日本さ、お宅の旗ちょっと気に入らないんで国際法を破ってもらえますかね」って言っているようなもんだよ。非常識っていうかなんというか。

(군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달고 있지 않는다면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권도 얻는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하는) 이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말하면 결국 ‘일본 있잖아, 너희 깃발이 좀 맘에 안 드는데 국제법 좀 어겨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라고. 몰상식이라고나 할까요.)

음...? 그게 왜 한국이 하는 얘기지? ‘깃발이 좀 맘에 안 드는데’는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이야기 아닌가? 한국의 식민지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저런 말은 할 수 없을 텐데 말이다. <del>누가 누구보고 몰상식이라는 건지...</del>

오래 전부터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이런 한일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어가 어느 정도 유창하게 되었던 중학교 3학년 때에는 하루 종일 야후 재팬에서 일본 ネトウヨ(ネット右翼의 준말,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일본 극우/우익 단체/세력/개인들)들과 싸우기도 했고, 産経新聞(산케이 신문)의 혐한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특히 어설픈 일본어로 직접 혐한 기사에 댓글로 우익들을 비판하고 일본을 비판하는 긴 댓글을 쓰면 항상 싫어요가 몇 십 개가 달리고 많은 댓글로 욕을 먹곤 했었다. 이때 필자는 일본은 정말 좋은 나라지만, 동시에 정말 싫은 나라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었던 것 같다.

온라인 상에서 한 명 한 명을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너무나도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말 즈음에 더 이상 그런 것을 멈췄다. 댓글을 달고 또 달아도 그들은 언제나 감정적, 비이성적, 비논리적, 몰상식적이었고, 이러한 댓글 싸움에 회의감을 느꼈었다.

그때 이후로 필자는 야후 재팬에서 혐한 기사가 보이면 무시하고 스크롤을 빠르게 내리곤 했다. 어차피 그 기사들을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있을 기사 내용과 댓글은 뻔했다. 굳이 혈압 올라가면서까지 그 글들을 읽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지금도 입력되고 있을 무수한 혐한 기사들과 혐한 댓글들이, 어쩌면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진짜 일본인들 속 내면, 裏表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동시에, 이들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의 근본을 파악하고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본어: す　し, 빨리 발음할 때 뒤쪽 모음 발음 안 되고 s ɕ 로만 발음되는 현상

광둥어와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의 한자 발음들은 생각보다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다. 고대 중국어까지만 해도 음절 종성에 파열음이 왔다.

<p>그런데, 고대 중국어에서 현대 북경어(엄밀히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글에서는 普通话도 ‘북경어’로 칭하겠다)로 발전하면서 coda들이 죄다 행방불명 되었다. 반면, 고대 중국어가 주변 지방/주변국(중국 남부 지방, 한국, 일본 등지)로 퍼져나가면서 일본어와 한국어, 광둥어 등의 언어에서는 한자음에 고대 coda가 그대로/조금 변형된 형태로 남아있다.</p>

<p>예시를 몇 개 가져와봤다.</p>

각주 1: 日本이라는 단어의 독음은 역사적으로 /nitipoɴ/ → /nippoɴ/ → /niɸoɴ/ → /nihoɴ/ 순서대로 발달되어 왔다. /p/에서 /ɸ/, 그리고 /h/로의 자음 약화 현상은 일본어 내에서만 발생한 국지적인 발음 변화 현상이므로, 여기에서는 본래 독음인 /nippoɴ/만을 고려하였다. 참고로 자음 약화 현상은 1603년 발행된 일본어-포르투갈어 사전(日葡辞書, Vocabulário da Língua do Japão)에서日本의 독음이 nifon, nippon, iippon 총 세 가지 종류로 적혀있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주 2: IPA 표기에서 성조 표기는 모두 제외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경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에서 공통된/비슷한 자음이 종성으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국적’에서는 연구개 파열음 /k/ 계열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단, 일본어 음절의 구조적 특성 상 음절의 종성에는 구개수 비음 /ɴ/이나 장음소만 올 수 있어 다른 언어에서 종성으로 관찰되는 파열음이 일본어에서는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서 이를 잘 관찰할 수 있는데, 광둥어나 베트남어의 치경 파열음 /t/와 한국어의 치경 설측음 /l/이 종성에서 나타나지만 일본어에서는 察의 독음이 /sa/와 /t͡sɨ/ 두 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번째 음절의 초성에서 치경 파찰음 /t͡s/이 관찰되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 ‘출발’, ‘일본’의 한국어 예시를 보면 한 가지 신기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광둥어와 베트남어, 일본어에서 치경 파열 또는 파찰음으로 발생되는 /t/와 /t͡s/가 한국어에서만 설측음인 /l/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이유는 Martin, Samuel E.의 <How Did Korean Get -l for Middle Chinese Words Ending in -t?>라는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간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photo

Martin, Samuel E., How Did Korean Get -l for Middle Chinese Words Ending in -t?.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Vol. 6, No. 3 (Jul., 1997), pp. 263-271.

정말 신기하다. 수능이 끝나면 꼭 정독해보고 싶은 논문이다.

이 글을 Gibberish에 넣을지 언어이야기에 넣을지 꽤 고민했다. 대부분의 Gibberish가 언어에 대한 글이 되어버려서인 것 같다. 앞으로는 언어에 대한 글이더라도 전문적인 언어학 지식이 포함된 글이면 언어이야기에, 일반인도 읽을 수 있는 일반적인 언어에 대한 이야기는 Gibberish에 넣도록 하겠다.

<blockquote>肉ròu /ʐoʊ̯/<br>

热rè /ʐɤ/<br>

人rén /ʐən/<br>

日rì /ʐ̩/</blockquote>

모두 한어 병음으로는 ‘r’로 표기되지만 실제 발음은 ‘r’과 아무 관련이 없는 유성 권설 마찰음 /ʐ/이다.

문득 든 생각인데, /ʐ̩/ 음운을 아무 기초 정보 없이 딱 들었을 때에 필자는 폴란드어의 ‘ż’가 가장 먼저 떠오르면서 이 음운을 /z/의 여러 variant 중 하나로 인식한다. 하지만, 중국어 ‘热’를 딱 들었을 때에는 병음 ‘r’이 떠오르면서 /r/의 여러 variant 중 하나로 인식을 하게 된다.

언뜻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현상이다.

우리가 서양의 언어, 특히 영어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ʐ̩/를 듣고 ‘z’가 먼저 생각나는 것일까? 그렇다면, 만약 병음을 아는 중국어 화자에게 /ʐ̩/ 음운을 들려준다면 ‘r’이 먼저 연상된다고 할까?

괴이하게도 폴란드어는 /ʐ̩/ 음운을 표기할 때 ‘ż’와 ‘rz’ 모두를 사용한다. 폴란드어 단어 rzeczpospolita /ʐɛt͡ʂ.pɔ.spɔˈlʲi.ta/ ‘commonwealth’가 한 예시이다. 그럼, 폴란드어 화자에게 /ʐ̩/ 음운을 들려주면 ‘r’과 ‘z’ 어느 쪽에 더 가까이 들리냐고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할까?

필자만 이렇게 느끼는 것인가 싶어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찾아보았다. ‘외래어 표기법’ 규정은, 외래어 음운을 한국어의 발음 체계에 맞게 표현하기 위해 한국어 화자에게 인식되는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외래어 표기법 제 2장 표기 일람표의 ‘중국어의 발음 부호’ 부분을 찾아보니, 한어 병음 자모를 기준으로 ‘r(ri)’는 ‘ㄹ(르)’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다음은 ‘폴란드어 자모’ 부분을 찾아보았는데, 놀랍게도 ‘ż’와 ‘rz’ 모두 모음 앞에서는 ‘ㅈ(, 시\*)’, 자음 앞/어말에서는 ‘주(, 슈, 시\*)’, 즉 ‘ㅈ’으로 표기한다고 한다. (\*/ʐ̩/이 /ʂ/로 무성화되어 ‘시’, ‘슈’, ‘시’로 표기되는 것은 폴란드어의 음운 규칙에 따른 것이므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겠다.) 같은 것과 다름없는 음운인데 언어에 따라 ‘ㄹ’가 되기도, ‘ㅈ’가 되기도 하면서 표기가 달라진다. 필자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무엇이 같은 음운을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었을까? 그 언어에서 사용되는 문자가 기준인 것일까? 중국에서는 /ʐ̩/을 병음 ‘r’로 적으니까 ‘ㄹ’이 원칙으로 정해진 것일까? 그렇다면 왜 폴란드의 /ʐ̩/는 ‘rz’으로도 적히지만 ‘ㅈ’이 원칙으로 정해진 것일까? 폴란드어 rzeczpospolita가 라틴어 *rēspūblica*에서 유래한 것을 감안하면 ‘제치포스폴리타’가 아닌 ‘레치포스폴리타’가 우리에게 더 익숙하게 보이지만 말이다.

/ʐ̩/ 음운을 표기하는 IPA 기호가 로마자 ‘z’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서는, 이 음운은 ‘z’의 variant로 보는 시각이 보편적이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여전히 이 추측이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는 이유가 보편적인 시각과 관계 없이 엄연히 /z/와 /ʐ̩/의 음성학적 유사성에만 기초해 이렇게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혼란을 독자 여러분이 해결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del>하지만 이 블로그를 찾아와 이 글을 읽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혼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del>

<https://www.youtube.com/watch?v=RY1TYRIUka8>

도쿄메트로 600계 열차가 10월 5일 부로 운행을 종료했다고 한다.

1968년 영단지하철 시절부터 지요다 선을 반세기 동안 달려온 이 열차, 일본 가면 꼭 타보고 싶었던 열차였는데 한 번도 타보지 못하게 되어 너무나도 아쉽다.

<https://www.youtube.com/watch?v=fsSpbEJEe5c>

으아아

컴퓨터를 폴란드어로 바꿨다.

<https://www.youtube.com/watch?v=r_q-uvPTyxg>

S-Train은

와… S-Train은 도쿄 메트로 관내에서도 안내방송이 도큐 전철 음성으로 나온다.

최근 폴란드어를 공부하면서, 폴란드어가 얼마나 슬라브 언어들 중에서 ‘the odd one out’인지 새삼 알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비음 모음이 남아있는 거의 몇 안 되는 슬라브 언어이며, ‘어린 왕자’가 러시아어로는 ‘Маленький принц’, 체코어로는 ‘Malý Princ’인데 폴란드어만 lateral (설측음) 대신에 labio-velar approximant (양순 연구개 접근음)을 써 ‘Mały Książę’이다. 이 /w/ 음운은 /l/ 음운과 닮은 점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폴란드어에서만 이런 모습을 보일까 라는 궁금증을 줄곧 가지고 있었다.

하루는 폴란드어 napisać ‘쓰다-완료형’ 동사의 동사 활용표를 보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표1

이 표를 보고 필자는 ł과 l이 아예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두 음소는 조음 위치라던지 조음 방법에 있어서 전혀 공통점이 없어 둘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어제는 샤워를 하면서 레미제라블 10주년 공연 녹화본을 유투브에서 감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테나르디에(Thénardier) 부부의 아들인 가브로슈(Gavroche)가 Act 1에서 ‘Look Down’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문득 필자의 관심을 끄는 소절이 있었다. 바로 다음과 같다:

This is my school, my high society

Here in the slums of Saint Michele

We live on crumbs of humble piety

Tough on the teeth, but what the hell!

가브로슈는 뮤지컬에서 가난하지만 당돌한 어린 아이로 나오는데, 이 아이의 용기 있는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 영국식 발음을 다소 극단적으로 발화한다. 여기서 필자는 ‘school’, ‘Michele’, ‘hell’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다. 어말에 오는 ‘l’을 모조리 /w/ 음운에 근접하게 발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잘 생각해보니 일반적인 표준 영국 발음도 ‘ball’ 등의 단어에서 어말 ‘l’을 /w/로 발음한다는 것이 생각났다.

영국 발음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이런 영상이 떴다:

<https://www.youtube.com/watch?v=zXNsvxAMM28>

이 소리를 영어에서는 보통 ‘Dark L’로 지칭하나보다. BBC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어말 /w/이다:

“…but we don’t pronounce it quite as clearly as in the word ‘silence’. The sound is half-finished; it’s almost there. (…) It almost sounds like a ‘w’ sound. It’s what we call a ‘dark L’.”

샤워하면서 레미제라블 10주년 공연을 감상하던 중 ‘l’과 ‘w’ 간의 관계의 실마리를 찾은 순간 ‘유레카’를 외치면서 샤워장을 뛰쳐나올 뻔했다. <del>본격 아르키메데스</del> 자, 이제 실마리를 잡았으니 본제로 돌아와 폴란드어와 러시아어를 비교해볼 차례이다. 열심히 단어들을 찾아보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표2

/ɫ/는 Velarized alveolar lateral approximant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본어로는 軟口蓋歯茎側面接近音(연구개 치경 측면 접근음)이라고 한다. <del>폴란드어로는 Spółgłoska półotwarta boczna dziąsłowa welaryzowana라고 한다. 폴란드어로 언어학을 공부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ㅎ</del> 한국어로는 이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찾기 힘들어서 영어와 일본어로 찾아봤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日本語ウィキペディア「軟口蓋化」より

ポーランド語の Ł は L と区別され、元来の発音は軟口蓋化した [l]（暗い L、[ɫ]）である。ただし現代では聞いた感じの似た [w] で発音されることが多い。

日本語ウィキペディア「軟口蓋歯茎側面接近音」より

Ł - ポーランド語の字母のひとつ。現代では両唇軟口蓋接近音 [w] を表すが、もとは軟口蓋歯茎側面接近音だった。

역시… 예상한 것이 맞았다.

게다가 더 흥미로운 것은:

日本語ウィキペディア「軟口蓋化」より

標準的英語（容認発音）の L の発音にも、明るい L（非軟口蓋化）と暗い L（軟口蓋化、[ɫ]）の区別があるが、環境により自然に区別され（位置異音）普通は意識されない。音節の母音前の L（lake、clean等）は明るい L、母音後または成節子音の L（milk、uncle等）は暗い L である。暗い L は日本語母語話者にはウまたはオのように聞こえる（上例ではミウク、アンコー）。ポルトガル語でも同様で、特にブラジルでは [ɫ] の代りに [w] で発音する。

日本語ウィキペディア「軟口蓋歯茎側面接近音」より

ブラジルポルトガル語 - 話者によっては軟口蓋歯茎側面接近音の代わりに両唇軟口蓋接近音[w] を用いることがある。

미쳤다… 정말 엄청난 정보이다. (번역하기 귀찮으니 내용이 궁금한 사람은 한자를 공부하거나 일본어를 공부하거나 번역기를 돌려라.)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폴란드어와 러시아어의 관계가 브라질 포르투갈어와 유럽 포르투갈어 사이에서도 관찰되고 있다니, 신기하다. 이 현상은 폴란드어에서 우연히 관찰되는 것이 아닌, 언어학적으로/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알게 되었다.

드디어 궁금증이 풀려서 너무 속 시원하다. 이제 폴란드어를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행복하다!

하나 놀란 것은 일본어 위키피디아 음성학/음운론 글들이 은근 정말 잘 돼있다. 한국어로는 설명들이 없거나 정말 조금 나와있는데, 일본어 자료들 중에서는 영어로 없는 것들도 많다. 여러분들도 음운론이나 음성학을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일본어 위키피디아를 사용해보기 바란다.

보통 ‘Dark L’이라고 불린다. 슬라브 언어들의 ‘Soft L’과는 다른 개념이다! Soft와 Hard는 구개음화 여부에 따라서 나뉘는 것이고, Dark는

표2

각주 (1): 같은 뿌리에서 온 단어가 왜 맨 앞 글자가 다른지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폴란드어로 넘어오면서 구개음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어 c는 원래 덴마크어 t와 같이 [ts]로 읽히지만 여기서는 뒤에 전설 고모음이 오면서 [tɕ]로 읽힌다. 그런데 러시아어와 슬라브 조어에서 관찰되는 alveolar stop이 폴란드어에서는 alveolo-palatal affricative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폴란드어에서 구개음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고도 다른 슬라브 언어에서는 t 등으로 읽히지만 폴란드어에서는 c 등으로 바뀐 현상이 꽤 많다.

<https://www.youtube.com/watch?v=nfwAT4dK8ms>

하네다（羽田） 발 메맘베츠（女満別） 행 일본항공 비행기인데…

무려 카타르 항공과의 공동 운항편이다.

별 노선을 다 코드 쉐어하네…

<https://www.youtube.com/watch?v=g1KiFON-GWg>

Key & Peele 너무 재밌어서 요즘 자주 보는데, 이걸 보다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다.

영상 초반에 마케도니아인으로 나오는 Key가 갑자기 добра 도브라! 라는 감탄사를 외친다. 여기서 또 한 번 슬라브 언어들의 유사성을 경험했다.

Dobrý가 체코어로 ‘good’라는 뜻인데, ‘좋아!’라는 뜻으로 마케도니아어에는 добра라고 한다는 건 정말 언어들이 다 비슷하다는 이야기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1_ATUSkwIV0>

台湾高铁 만다린: 타이완까오티에, 대만어: 따이완꼬우티-, 하카어: 토으완고우티에

대만고속철도 안내방송 모음집이다.

요즘 중세 중국어와 광둥어에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안내방송에 표준 중국어, 대만어, 하카어 3개의 중국어가 나오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

**홋카이도 이부리 지방(北海道胆振地方) 지진**

2018년 9월 6일 오전 3시 8분에 일본 홋카이도 이부리 종합진흥국 아츠마 정（北海道胆振総合振興局厚真町）을 진원으로 최대진도 6강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부리 지방, 히다카（日高） 지방, 홋카이도의 현관 신치토세공항（新千歳空港）과 홋카이도 최대 도시 삿포로（札幌）가 위치한 이시카리（石狩） 지방에서 진도 5가 관측되는 등 꽤 규모가 큰 지진이었다. 이 지진으로 이부리 종합진흥국 아츠마 정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이 매몰되는 등의 사고가 잇따랐고, 홋카이도 남부 하코다테（函館）와 중부 삿포로에 걸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JR 홋카이도（JR北海道）는 이 지진으로 한때 홋카이도 내 전 노선의 운행을 중지하였다. JR 계열사 중에서 최대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데, 이 지진으로 인해 입은 재정적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본다.

<http://mobile.jrhokkaido.co.jp/webunkou/index.asp?a=1>

9월 15일 기준 홋카이도 운행 정보이다.

\*14일 첫차부터 운전 재개 구간

삿포로~오비히로/구시로 간 특급 ‘슈퍼 오오조라’, ‘슈퍼 토카치’ 첫차부터 운전 재개

센모선 구시로~마슈 간 16시부터 운전 재개 (센모선이면 나카시베츠 쪽 홋카이도 동부인데 그쪽까지 지진이 영향을 주었다는 걸 보면 지진의 규모가 꽤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아니면 평소에 제대로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 구간이라 약간의 지진에도 피해가 컸을 수 있다. JR 홋카이도는 재정 상황이 심각한 회사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15일 첫차부터 운전 재개 구간

하코다테선 오샤맘베~굿챤 간 (와, 여기 드디어 복구 완료했구나! JR 홋카이도 주력 노선인 하코다테~삿포로에는 사실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오샤맘베에서 하코다테선을 경유해 니세코, 오타루를 거쳐 삿포로 서쪽으로 들어가는 루트와 오샤맘베에서 무로란본선을 경유해 도오야, 다테몬베츠, 무로란, 노보리베츠, 도마코마이, 치토세를 거쳐 삿포로 동쪽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있다. 1986년 11월 1일 JR 홋카이도 다이아 개정으로 특급과 급행이 폐지된 이후로는 정기 열차가 운행하지 않고, ~~산골도시~~ 니세코 관광 프로그램을 곁들인 계절 열차로 하코다테-삿포로 간 특급이 운행하고 있다. 지도에서 하코다테선과 무로란본선을 비교해보면 하코다테선 쪽이 덜 돌아가지만, 실제 소요시간을 비교하면 하코다테선 경유 특급 열차는 4시간~5시간, 무로란본선 경유 특급 열차는 3시간 반 정도이다. 그만큼 하코다테선 쪽은 산 안 쪽을 굽이굽이 돌아가고 선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로란본선의 우회 루트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일본 위키피디아에 적혀있는데 ~~솔직히 중요 노선인지 잘 모르겠다~~.)

<운행 보류 구간>

무로란선 도마코마이~이와미자와 간 (오이와케 경유)

히다카선 도마코마이~무카와 간 (일부 대체 버스 운행)

가쿠엔토시선 홋카이도이료다이가쿠~신토츠카와 간 (가쿠엔토시선도 사실 삿포로 권에서 메이저 노선 축이 끼지만 홋카이도이료다이가쿠 이북으로는 이용자 수가 꽤 적다.)

세키쇼선 신유바리~유바리 간

네무로선 타키카와~후라노~히가시시카고에 간 (히가시시카고에~신토쿠 간 대체 버스 운행)

센모선 마슈~아바시리 간 (홋카이도에 여러 외곽 지역이 있지만 여기는 외곽 중에서도 외곽 구역이라 할 수 있을 듯 하다. 복구가 늦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하나사키선 앗케시~네무로 간 (어딘지로 모르겠다 여긴…)

전반적인 개요는 이러하다. 아, 그리고 삿포로 근교로는 9/10부터 긴급 절전 태세에 들어가 전력수요가 많아지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삿포로~아사히카와/무로란 간 일부 특급열차와 무로란선 히가시무로란~무로란 간 일부 보통열차를 운휴한다고 한다. 상황이 심각하긴 한가보다.

<https://www.youtube.com/watch?v=H5OGVCK0riY>

運転区間短縮

도쿄 발 신하코다테호쿠토 행 하야부사 1호가 9월 7일에는 신아오모리 행으로 행선지를 바꿔 단축운행하고 있었다. 이 영상은 단축운행 하야부사 1호의 전구간 주행 영상인데, 센다이 모리오카 간을 달리던 1시간 50분 쯤 차장이 흥미로운 방송을 한다.

“新幹線をご利用ください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やぶさ１号の本日の終点は新青森です。新青森から先北海道新幹線について新しい情報が入りましたのでお知らせ致します。昨日から運転を見合わせておりました新青森から先新函館北斗までの北海道新幹線について新しい情報が入りましたのでお知らせ致します。運転再開の見込みが立った模様です。今日のはやぶさ１１号から運転を再開すると情報が入っております。なお、運転再開の最初の列車になるますので相当の混雑が予想されます。

“신칸센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야부사 1호의 행선지는 신아오모리입니다. 어제부터 운행을 보류하던 신아오모리~신하코다테호쿠토 간 홋카이도신칸센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하야부사 11호부터 운전을 재개할 것이라는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운전을 재개하는 첫 열차가 되는 만큼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니 뭔가 어색하다.)

신기하다.

9월9일 새벽 1시 13분 아니 무슨 날짜가 구구야 씨발 무슨 비둘기여?지랄하고 자빠졌네 썅

하 씨발 존나 정신병 걸릴 거 같다

이게 씨발 쓰고 쓰고 쳐 지랄 난리 브루스를 다 떨면서 또 써도 끝나지를 않는다 썅

아니 무슨 씨발 좆같은 대학들이 뭐라고 씨발

진짜 개좆같네 썅

걍 개 씨이이잉이이이발 좆같네 아아아아악 다 쳐 때려 부숴버리고 싶다 개쉑끼들

아아앙ㅇ앙앙앙

**新潟新交通**

新潟県の県庁所在地である新潟市は人口６０万を誇る中核市であるものの、地盤がみずみずしくて弱いという理由で地下鉄やモノレールなとの大型交通手段が作られていない。このようなことにより、新潟市には昔から市街から放射線の形で伸ばしていくBRTバス路線などが発達している。

筆者が今回作った

요고는 몫소리가 특이해

꽤 ㄱㅊ 한 9.5내가 보기엔 니가 나 한테 밥을 한 5번은 사야할듯

이 가수 이름 좀 알려주면 안 됨? 방금 ㄴㅗ래

고민ㄴㄴ

도엽이 인간이 말이야 계속 펒부ㅜ잖아 그러면 호의가 권리가 된다

이런 비트 강한 거 좋음 후렴이 지려 귀르가즘 ㅇㅈ ㅇㅈ

걍 개성 강하고 뭔가 걍 이런거 좋아함

약 근데 진짜 이게 ㄹㅇ 반ㄱ아ㅜ누게 반가운게 내가 맨날 이런 노래 찾아가지고 애들 들려주ㅜ면 개 욕먹으면서 막기ㅜ라고 막귀 왜냐면 이런 게 약간 매니아층이 이잖아 그래서 막 아 서럽다고